

주요 선진국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및 정책 시사점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인문학 지원기관 현황, 프로그램 및 특징, 시사점 –

I. 서론

II. 미국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III. 일본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IV. 프랑스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V. 독일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VI. 결론

CONTENTS

Ⅰ	서론	1
Ⅱ	미국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3
	1. 개요	3
	2. 대표적 인문학(또는 인문학 포함 융복합 연구지원) 지원 프로그램 및 특징	16
	3. 최근 정책동향 및 시사점	28
Ⅲ	일본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32
	1. 개요	32
	2. 대표적 인문학(또는 인문학 포함 융복합 연구지원) 지원 프로그램 및 특징	36
	3. 최근 정책동향 및 시사점	45
Ⅳ	프랑스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47
	1. 개요(인문학 분야 연구지원 기관 실태)	47
	2. 대표적 인문학(또는 인문학 포함 융복합 연구지원) 지원 프로그램 및 특징	48
	3. 최근 정책동향 및 시사점	59
Ⅴ	독일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61
	1. 개요	61
	2. 대표적 인문학(또는 인문학 포함 융복합 연구지원) 지원 프로그램 및 특징	69
	3. 최근 정책동향 및 시사점	76
Ⅵ	결론	79
■	참고문헌	81

I. 서론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는 한국 학술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의 이공계 쏠림으로 인문학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학문후속세대는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 시스템 전체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학문과 교육이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현재, 한국의 인문학은 기초학문의 토대를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이념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화는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며 2010년대 이후 ‘인문학의 위기’는 세계 공통의 명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의 인문학은 21세기에 어떠한 길을 열어 가야 할 것인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인문학 지원 시스템이 발달해 있는 나라들이 운영하는 인문학 지원기관을 조사함으로써 각 나라가 추구하는 인문학의 방향성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나아가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대상으로 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두 나라(프랑스, 독일)까지 4개국으로, 각 나라의 인문학 연구 및 교육 지원기관은 21세기 인문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목적과 방향성은 각기 다르다. 미국 국립인문재단(NEH)의 경우 미국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이고 동시대적인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문학이라는 재단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일본은 한국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이 2000년대부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인문학의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여 발표하는데,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일본학술진흥회(日本学術振興会, JSPS)이다. 일본학술진흥회에서는 인문학 분야의 지원을 둘러 싸고 융복합 교육의 지향, 학제간 연구 지원 장려 등 한국의 인문학과 비슷한 방향의 움직임을 한발 빠르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인문학 지원이 연방/국가의 대표적인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유럽은 다양한 기관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인문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는 19세기 이후 학문과 예술을 국가가 주도하여 보호 장려해 왔으며 인문학 연구지원 및 인문학 연구를 기획 관리하는 여러 기관(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프랑스의 공동연구단(Unité Mixte de Recherche, UMR), 인문과학원(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MSH) 등을 중심으로 인문학 분야를 진흥시켜 나가고 있다. 독일은 국제적 인문학 교류의 중심에 서 있는 독일 인문학의 전통과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전국적으로 조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독일에서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 100여 개의 연구소 및 대학과 협력하는 비정부 기구인 독일연구협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를 들 수 있다.

이처럼 각 나라 및 지역에 따라 인문학 지원 방향 및 지원기관의 양상은 해당 국가/지역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다. 하지만 각 나라의 인문학 지원기관은 모두 '인문학의 위기'라고 불리는 상황을 뛰어넘어 현재,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인문학을 재정의하고 새롭게 지원하고자 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주요 선진국의 인문학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을 조사함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인문학을 위한 한국형 지원사업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미국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1 개요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 미국 내 인문학 및 인문학 포함 문화예술 융합연구 분야에서 이뤄지는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참고할 장점과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크게 보자면, 인문학을 전 세계가 겪는 동시대적 위기 해결을 위한 학술 주체로 상정하고, 그에 부응하는 인문학 및 관련 융복합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타진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해당한다. 위기의 구체적 예로 국가 간 긴장과 전쟁, 기후환경 문제, 민주주의의 쇠락, 공동체 붕괴, 세대 및 성별 갈등, 사회적 참사, 자연재해, 생성 AI가 촉발시킨 인간과 기술의 특이점(singularity) 국면 등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조사한 미 국립인문재단의 연구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의 전체 틀은 동시대 당면 문제에 대응하는 인문학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향한 목적의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또한 60여 년 이어진 재단의 전통에 근거해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새로운 도전 간 균형을 맞추고, 개인 연구자 및 각 기관(대학, 미술관, 박물관, 방송사, 독립 인문학협회 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창출할 성과에 대한 기대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조사는 한국의 인문학 및 문화예술 융복합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정책과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참조로서 미 국립인문재단의 그랜트(grants)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인문학 연구 또한 지난 수십 년 간 역사적, 사회적, 공동체적 과제 수행으로 기여해왔고 현재도 대학을 비롯해 인문학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꾸준히 중요한 의제를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후반 이후 한국의 산업기술 중심 근현대화 과정에서 고착된 이공계 우선 연구지원 비중과 평가제도, 대학 서열화 및 경영 우위 교육정책, 학령인구 감소와 학술 생태계의 위축 등으로 인문학의 연구 형편은 주변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연한 듯 턱없이 적은 예산, 지원자 규모와 연구 역량에 비해 낮은 선정률, 연구주제 및 수혜 대상의 한정된 범위를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유독 인문학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연구자 개인의 헌신이나 후속세대의 사적 열정을 원천으로 한 학술 지형의 문제 해결 및 연구/창작 환경 개선을 당연시해왔다.

또 그렇게 개인 전공자나 연구자가 열악한 조건에서 자가발전으로 거둔 성과에는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미화하는(역으로 비가시적 성과나 실패에 대해서는 ‘문송하다’거나 ‘인문학 무용론’, ‘부유한 집안 출신 예술가의 사적 취미’ 등을 언급) 사회인식 또한 지원 정책과 진보적 프로그램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인문학 및 문화예술 융복합 연구 활성화 방안 및 지원 시스템을 국가적, 공동체적 차원에서 견인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개할 경우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단지 연구자들의 개인 과제 지원 차원을 넘어 기관 지원을 통해 연구자와 인문학 환경 전반이 동반 성장하는 과제 수행 방식, 그렇게 해서 과학과 기술로는 풀 수 없는 동시대 난제를 인문학 및 문화예술 융복합 연구로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가령 미국 국립인문재단은 “American Tapestry: Weaving Together Past, Present, and Future” 라는 기관 이니셔티브 프로그램¹⁾을 통해 인문학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직면한 복합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지원 장려한다. 미국의 역사와 국가적 조건에서 가장 오래되고 현재도 어려운 문제인 인종차별부터 불평등, 사회 갈등, 정치적 위기, 교육 격차, 기후 위기, 기술의 급진전에 따르는 위험 문제 등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보는 “인문학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기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사는 미국의 인문학 지원기관 중 “유일한 연방 기관”인 국립인문재단(이하 NEH: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https://www.neh.gov/>)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및 2023년 연구 지원 현황을 소개한다. 여기서 소개하지 않는 기타 인문학 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립 인문학 센터(National Humanities Center): 인문학의 육성을 위해, 거주 연구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공공 참여 프로그램 등의 펠로우십을 제공한다.²⁾

주 인문학 위원회(State Humanities Councils): 미국의 모든 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작은 규모의 지역 인문학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멜론 재단(The Mellon Foundation): 고등교육, 학문, 예술과 문화유산에 중점을 두며, 주로 교육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 다양한 인문학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³⁾

1) <https://www.neh.gov/american Tapestry>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으로서 다음 7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Dangers and Opportunities of Technology: Perspectives from the Humanities>, <A More Perfect Union>, <Spotlight on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 <Cultural and Community Resilience>, <Climate Smart Humanities Organizations>, <Educating for American Democracy Initiative on Civics Education>, <United We Stand: Connecting Through Culture>.

2) <https://www.neh.gov/grants/application-process>

사회과학위원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 중점을 두지만, 인문학 연구를 포함한 학제간 연구에도 지원한다.

포드 재단(The Ford Foundation): 사회 정의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며, 사회 문제와 관련된 인문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다.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Fulbright Program): 인문학자를 포함하여, 학생과 학자들이 해외에서 연구, 교육, 또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⁵⁾

구겐하임 재단(Guggenheim Foundation): 인문학을 포함하여, 학자와 예술가에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펠로우십을 제공한다.⁶⁾

미국 학문 단체협의회(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ACLS):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펠로우십과 지원금을 제공한다.⁷⁾

미국 예술과 과학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인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과 펠로우십을 제공한다.⁸⁾

나. 미국의 대표적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기관

□ 국립인문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는 1965년 미 36대 대통령 린든 B. 존슨이 서명한 “예술과 인문학을 위한 국가재단법”(Public Law 89-209)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 연방 기관”으로서 역사, 문학, 철학, 나아가 여타 인문학 분야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한다. 설립 당시 “과거에 더 날카롭게 집중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더 나은 분석과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시각을 갖기 위해 과학과 기술만이 아닌 학술적, 문화적 행위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법안에 명시했다. 이 설립 이념은 2023년 새로 시작한 그랜트 프로그램인 <기술의 위험과 기회: 인문학의 관점> (“American Tapestry” 기관 이니셔티브 내) 소개 문구부터 의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에까지 비슷한 문구가 반복 명시되는 데서 보듯 NEH의 뿌리 깊은 정체성이자 현실 인식이며 미래 비전의 요체다. 또한 자연스럽게

3) <https://www.neh.gov/ode>, <https://www.neh.gov/about/budget-performance>

4) <https://www.fordfoundation.org>

5) <https://us.fulbrightonline.org>

6) <https://www.gf.org>

7) <https://www.acls.org>

8) <https://www.amacad.org>

역사철학을 바탕으로 두고 미국의 인문학과 예술이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중차대한 과업의 수행 주체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⁹⁾

2023 회계연도 예산은 20,700만 달러(약 2,643억 원)이고, 2024년 예산은 21,100만 달러다.¹⁰⁾ NEH의 2023년 예산은 과학분야 국책 지원기관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의 2022년 예산 \$8,838,000,000의 2.34%에 해당하는 수치다.¹¹⁾ NEH의 예산은 기관의 58년 역사 중 1965년 2천 7백만 달러에서 시작해 1979년 4억 달러까지 급증했다가 1990년대 중반 1억 4천만 달러로 대폭 삭감된 이후¹²⁾ 그나마 점차 회복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수십 년 사이의 화폐가치 변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NEH의 예산 규모는 현재로 오면서 현저히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2023년 4월 18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NEH는 “[2023년 현재]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총 258개의 새 인문학 프로젝트에 3,563만 달러 교부금을 지원할 것”을 공표했다.¹³⁾

NEH의 이념은 미국의 공공을 위한 고등연구,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심화 교육, 평생 학습 및 문화유산의 보존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에 NEH는 “역사, 철학, 문학, 언어, 윤리, 고고학, 정치 이론, 법학, 비교 종교, 인문 사회 과학을 포함하는 인문학 전 분야 연구”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명시되지 않지만 예술, 문화, 미디어, 교육 분야가 각 인문학 분야와 연결되며 학제/다원/융복합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장기 지원이 이뤄져왔는데, 그 지원의 세부 프로그램은 미술관 부속 건물 건축 또는 디스플레이 재구성 같은 하드웨어 지원뿐만 아니라 역사, 언어, 고고학, 비교 종교, 아카이브 구축, 다큐멘터리 제작 등과 연결된 융합 과제들을 포함한다.

요컨대 NEH는 “미국 시민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를 지원하여 인간 조건을 조사하고,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다양한 신념과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을 육성하고, 미디어 및 정보 활용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 교육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하는데 이는 각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된다.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NEH는 58년간 전국적으로 박물관, 유적지, 학교, 대학, K-12 무상교육, 도서관,

9) “Fiscal Year 2024 Congressional Justification”,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March 2023, <https://www.neh.gov/sites/default/files/inline-files/NEH%20FY%202024%20CJ%20%281%29.pdf>

10) 2023년 세출(천 달러 단위) <특별 이니셔티브, 7,000>, <디지털 인문학, 6,250> <교육 프로그램, 15,400>, <연방/주 파트너십, 65,000>, <보존 및 접근성, 22,500>, <공공 프로그램, 15,800>, <연구 프로그램, 17,500>, <프로그램 개발, 2,800> 이상 소계 152,250 + <챌린지 보조금 15,750>, <재무부 매칭 펀드 3,000>, 이상 소계 18,750 + <관리비 36,000>, 합계 \$207,000. cf. 2024 회계연도 \$211,000

11) NSF 예산: <https://www.nsf.gov/about/congress/119/highlights/cu22.jsp>

12) 박찬길, 「미국과 독일의 인문학 지원정책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11-0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p. 54 표와 p. 55 참고.

13) Press Release, “NEH Announces \$35.63 Million for 258 Humanities Projects Nationwid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April 18, 2023.

공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 연구 기관, 독립 학자, 주 및 관할 인문학 협회에 총 60억 달러의 보조금을 교부해왔다고 밝혔다. 대략 1년에 1억 달러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셈이다. 이로써 NEH는 “국가의 문화 및 교육 부문에 중요한 생명선을 제공하고 인문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을 유지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평하면서 연방정부를 향해 지속적이고 더 큰 뒷받침을 주문하고 있다. 나아가 NEH는 미국 내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 조직적 인종차별에 의해 끊이지 않는 사회적 참사, 계속되는 기후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하였다.

NEH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사장(Chairperson)이 재단의 정책 결정, 예산 배분, 지원대상 선정, 운영 및 감독 등 재단 전반의 결정 사항에 대해 법적 권한을 지니는 한편 다음과 같은 자문기관과 분과 및 사무국에 의해 자문 및 행정적 도움을 받는다.

<국립인문학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Humanities)>¹⁴⁾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26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립인문학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Humanities)는 NEH 의장(Chair)에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국립인문학위원회 멤버들은 6년씩 교대로 임기를 보낸다.

<의회 사무국(The Office of Congressional Affairs)>¹⁵⁾

이 사무국은 의회 의원과 재단 사이의 연계를 담당하며, 의회를 통해 NEH에 배정된 연방 자금이 미국의 모든 주, 의회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커뮤니케이션 사무국(The Office of Communications)>¹⁶⁾

NEH와 미디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며, NEH 지원 프로그램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미국 사회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 사무국은 보도자료와 기타 정보를 발행하고, NEH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관리한다. 또한 미디어의 요청에 응하고, NEH 직원과의 인터뷰를 조정하며, 국립인문학메달과 연례 제퍼슨 인문학 강연 등 NEH의 주요 공공 행사를 담당한다.

14) <https://www.neh.gov/about/national-council-on-the-humanities>

15) <https://www.neh.gov/about/chairman/congressional-affairs>

16) <https://www.neh.gov/about/chairman/office-communications>

<감사 사무국(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¹⁷⁾

이 사무국은 감사, 법률 검토, 정책 추천을 담당하며 NEH 재단 이사장과 의회에 기관의 프로그램과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나 결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한다.

<데이터와 평가 사무국(The Office of Data and Evaluation, ODE)>¹⁸⁾

이 사무국은 인문학 자금 및 활동에 대한 공공 보고를 담당하며, 연방 지침에 따라 기관 활동을 평가하고 NEH 지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 프로그램 분과(Division of Research Programs)>¹⁹⁾

NEH의 연구 프로그램 분과는 인문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학술 연구를 지원한다. 특정 분야와 인문학 전반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개인연구와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연구논문, 번역서, 학술저서에 대한 지원을 통해, NEH는 인문학 교육과 공공 프로그램에 장기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지식 양성을 추구한다.

<교육 프로그램 분과(Division of Education Programs)>

NEH의 교육 프로그램 분과의 목표는 초등중등교육(K-12)부터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과 일반대학까지 모든 수준에서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자들과 함께하는 집중적인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은 인문학 주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한다. 또한 새로운 교육과정, 교육 프로젝트, 심화과정 강의 개발 등을 지원한다.

<보존 및 접근 분과(Division of Preservation and Access)>

NEH의 보존 및 접근 분과를 통해 지원되는 프로젝트들은 국가 문화 유산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의 문화적 유산의 대부분은 도서관, 미술관, 아카이브에서 보관되는 책, 연속간행물, 원고, 음성 녹음, 정지 및 동영상, 미술 작품, 그리고 디지털 컬렉션에 있다. NEH는 이러한 컬렉션을 보존하고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17) <https://www.neh.gov/about/oig>

18) <https://www.neh.gov/ode>

19) 분과 및 사무국에 대한 내용은 연간 보고서 참고:

<https://www.neh.gov/sites/default/files/inline-files/NEH%202020%20Annual%20Report.pdf>

<공공 프로그램 분과(Division of Public Programs)>

NEH의 공공 프로그램 분과는 박물관과 도서관 전시, 독서와 토론 시리즈, 텔레비전과 라디오 다큐멘터리, 역사적 장소의 해석, 디지털 미디어 프로젝트, 그리고 수백 개의 지역 도서관과 문화 기관에서의 역사와 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인문학 주제를 광범위한 대중에게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디지털 인문학 사무국(Office of Digital Humanities)>

NEH의 디지털 인문학 사무국은 인문학의 연구와 교육에서 컴퓨팅 도구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지원된 프로젝트에는 데이터 시각화, 검색 가능한 아카이브 자료를 온라인에 올리기, 텍스트의 클라우드 소싱을 통한 대조 분석 등이 포함된다. 이 분야는 자료를 어떻게 검색하고, 마이닝하고, 표시하고, 가르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종종 미국 및 해외의 다른 자금 기구와의 파트너십을 촉진한다.

<챌린지 그랜트 사무국(Office of Challenge Grants)>

챌린지 그랜트 프로그램은 개인 자금을 유도하는 매칭 그랜트를 수여함으로써 인문학 분야에서의 기관과 조직의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챌린지 그랜트 프로젝트는 박물관과 도서관 같은 구조물을 건축하고 개조하는 것, 그리고 인문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갱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연방-주 파트너십 사무국(Office of Federal-State Partnership)>

연방-주 파트너십 사무국을 통해, NEH는 인문학 교육, 평생 학습, 그리고 공공 인문학 프로그래밍의 56개 주와 지역에 대한 확산을 지원한다. 연방-주 파트너십 사무국은 지정된 주 및 지역 인문학 협의회와 협력하여 인문학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지역, 지역 단위에서 인문학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 그리고 지원을 강화한다.

다. 국립인문재단 설립 배경, 기관 성격, 주요 연혁

1) 설립 배경

NEH는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국립 예술 및 인문학 재단 법(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Act)’에 서명하여 법률로 만들어졌다. 이 법은 국립인문재단(NEH)과 국립예술재단(NEA)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명령했다.

법안은 연방정부가 과학에 투자했던 것처럼 문화에 투자하자는 움직임의 정점이었다. 이 법안을 이끈 계기는 1963년에 시작되었다. 세 학술 및 교육 단체인 미국 학문 학회(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ACLS), 미국 대학원 학교 협의회(Council of Graduate Schools in America), 그리고 피 베타 카파 유나이티드 챕터(United Chapters of Phi Beta Kappa)가 국립 인문학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Humanities)를 설립하기 위해 합류했고, 1964년 6월, 위원회는 인문학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과학에 대한 강조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프로그램까지 인문학의 연구를 위협한다고 판단했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국립 인문학 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1964년 8월, 펜실베이니아 주 의원 윌리엄 무어헤드가 위원회의 권고를 실행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9월에는 존슨 대통령이 브라운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1965년 3월, 백악관은 국립 예술 및 인문학 재단의 설립과 2천만 달러의 창업 자금을 요청했으며, 국립 인문학 재단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관이 인문학 분야에서의 리더로 구성된 지배 기구의 조언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1965년 9월 중순, 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국립인문재단이 설립되었다.²⁰⁾

2) 기관 성격

NEH는 기획, 선정,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연방 기관이다. 26명으로 구성된 국립인문학위원회는 NEH의 정책 결정에 자문을 제공하고 의회는 NEH가 요청한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20) <https://www.neh.gov/about/history>

기획:²¹⁾

공공의 관심사나 학계의 동향, 국가적 혹은 국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7개의 분과 및 부서(연구 프로그램 분과, 공공 프로그램 분과, 교육 프로그램 분과, 보존 및 접근성 분과, 디지털인문학 사무국, 챌린지 사무국, 연방/주 파트너십 사무국)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주제를 기획한다.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 신청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의도와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의회는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승인한다.

선정:²²⁾

지원 신청서를 평가하기 위해 다층적이고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매년, 약 5,700개의 지원서를 외부 전문가 약 1,000명의 도움으로 심사한다. 지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통합된 단계를 거쳐 검토된다. (1) 패널 리뷰: 초기에는 외부 전문가의 패널이 특정 기준, 예를 들어 인문학적 중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원서를 평가한다. (2) NEH 직원 리뷰: 패널 평가 후, NEH의 직원은 추천을 정리하고, 상위 평가를 받은 지원서에 중점을 두어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3) 국립인문학 위원회: 연간 세 번 회의를 통해 26명의 자문 위원회는 직원의 추천을 검토하여, NEH 이사장에게 추가적인 심사와 조언을 제공한다. (4) NEH 이사장 결정: 이전 단계의 모든 조언을 고려하여 선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NEH 이사장이 내린다.

평가:²³⁾

데이터 및 평가 사무국(Office of Data and Evaluation, ODE)은 일반 대중에게 인문학 지원과 활동에 대한 보고를 담당한다. 또한 연방 지침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관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재단의 지원 결정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영향력이 확산되도록 한다. 국립인문재단이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는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 지원의 투명성과 확산에 기여한다.

관리:²⁴⁾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비용 원칙, 감사 요건 등의 감독은 지원 관리 사무국(Office of Grant Management)이 담당한다. 행정 내용 및 법률, 규정, 지침 준수를 위한 신청서 평가, 지원자 및

21) <https://www.neh.gov/sites/default/files/inline-files/NEH%20FY%202024%20CJ%20%281%29.pdf>

22) <https://www.neh.gov/grants/application-process>

23) <https://www.neh.gov/ode>, <https://www.neh.gov/about/budget-performance>

24) <https://www.neh.gov/grants/manage>

수상자에 대한 자문과 기술 지원 제공 등을 지원 관리 사무국이 맡는다. 또한 주기적인 보고와 업데이트를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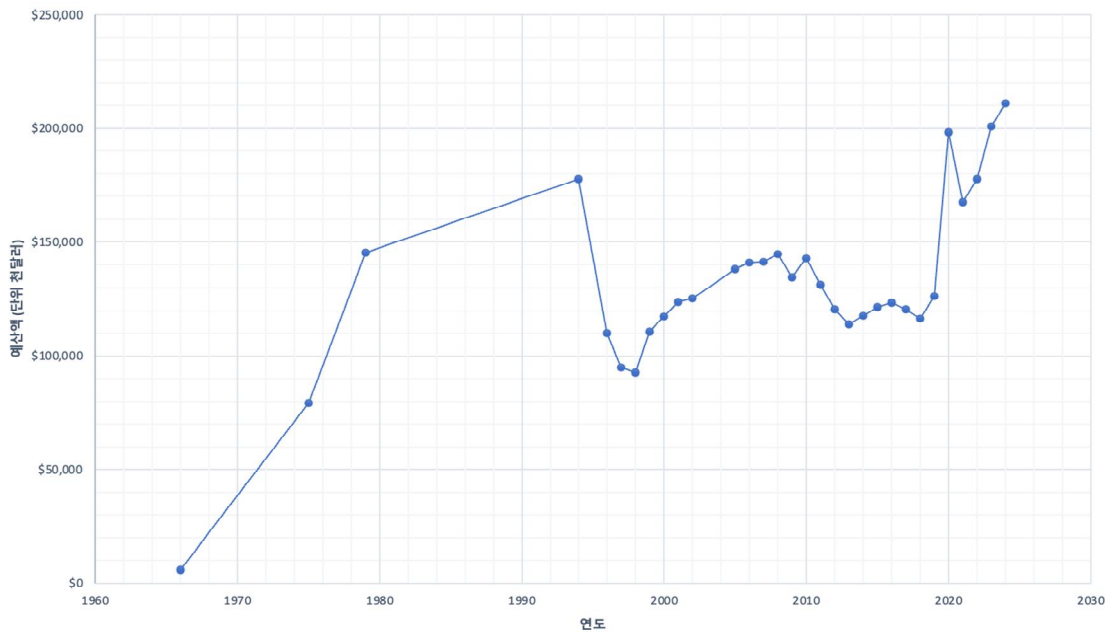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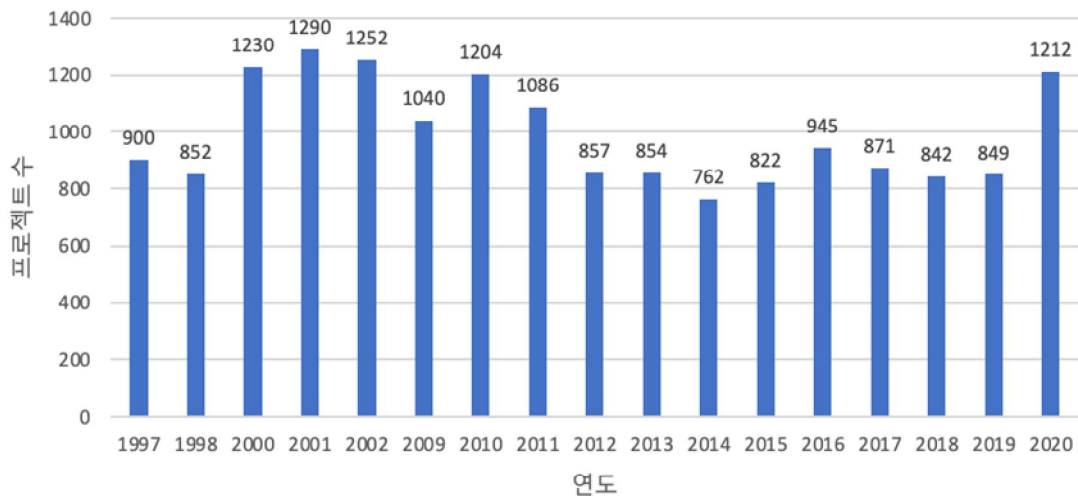
3) 주요 연혁²⁵⁾

- 1965년: 예술 및 인문학 재단법(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Act of 1965)에 존슨 대통령이 서명하여, 국립인문재단(NEH)과 국립예술재단(NEA)이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됨
- 1966년: Johnson 대통령이 국립 인문학 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Humanities)의 첫 26명의 위원을 임명함.
- 1967년: 첫 번째 157개의 NEH 펠로우십과 130개의 여름 보조금 수여
- 1969년: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 프로그램 부서를 신설
- 1971년: 6개의 실험적인 주 기반 인문학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
- 1972년: 미국 의회도서관의 <Cataloguing in Publication>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 시작함
- 1973년: 국립과학재단(NSF)과 <과학, 기술, 그리고 인간 가치> 프로그램에서 협력을 시작
- 1974년: 280만 달러의 초기 지원금으로 대학과 인근 공립 학교간 파트너십 모델이 된 Yale-New Haven Teacher Institute 설립을 지원
- 1976년: 국립노령위원회(NCA)가 개발한 노인 센터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시작함
- 1977년: ACLS/SSRC(사회과학위원회) 국제 박사후 연구원 프로그램 펠로우십에 대한 재정 지원 시작함
- 1979년: 1473년부터 1801년까지 출판된 모든 영어책의 데이터베이스인 English Short Title Catalogue에 대한 재정 지원 시작함
- 1980년: 1100년 부터1500년 사이의 영어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참고서적인 <중세영어사전>에 대한 재정 지원 시작함

25) <https://www.neh.gov/about/history/timeline>

- 1981년: Reagan 대통령은 인문학 및 예술에 대한 대통령 직속 전담팀을 설립하고 문화 활동을 위한 민간 기부를 촉진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지시함
- 1982년: 각 주에서 1690년 이후 발행된 신문을 목록화, 카탈로그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신문 프로그램이 설립됨
- 1984년: Dante 사후 6세기 동안 작성된 <신곡>에 대한 해설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Dartmouth Dante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시작함
- 1985년: 국립 도서관의 인문학 고문서 보존을 위해 보존 사무국(Office of Preservation)을 신설
- 1986년: Folger Shakespeare 연구 센터의 고등학교와 대학 교원을 위한 르네상스 연구 세미나 지원 시작함
- 1988년: 8백만 달러의 추가 예산으로, 3백만 권의 고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는 20년 계획 사업을 시작함
- 1989년: 국가유산보존 프로그램을 보존 사무국 내에 설치
- 1993년: 첫 번째 NEH 박사 논문 그랜트가 인문학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수여됨
- 1994년: <A National Conversation on American Pluralism and Identity> 시작함
- 1995년: 펠로우십 및 세미나 부서의 일부가 연구 및 교육 부서와 병합되고, 연방/주 파트너십(Federal/State Partnership) 분과 신설
- 1996년: 3년간의 <Teaching with Technology> 이니셔티브를 시작함
- 1998년: New Millennium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교실 지도에 기술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20개의 그랜트 수여
- 1999년: 미국 전역에 10개의 지역 인문학 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함
- 2000년: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Library of America, 미국도서관협회와 함께 국립공공도서관 이니셔티브 시작함
- 2002년: George W. Bush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 연구, 이해를 장려하기 위한 <We the People 이니셔티브>를 시작함
- 2003년: We the People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첫 <We the People Bookshelf>를 발표

- 2004년: 미국 전역 17개의 역사 및 문화 유적지에서 열릴 첫 <미국의 랜드마크> 교사 워크숍을 발표
- 2005년: 미국의회도서관과 미국 디지털 신문 프로그램(NDNP)의 첫 그랜트를 발표하고, 국립과학재단(NSF)와 새로운 파트너십, <멸종 위기 언어 문서화>를 발표함
- 2006년: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와 함께 교사, 학자, 박물관 및 도서관이 첨단 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Advancing Knowledge: The IMLS/NEH Digital Partnership>을 발표함
- 2007년: 인문학 교육, 학문 연구, 그리고 공공 프로그래밍에서 기술의 혁신적인 용도를 탐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에 대한 첫 디지털인문학 스타트업 그랜트를 수여함
- 2009년: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에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고 국제 파트너십을 개발 하도록 학자들에게 도전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Digging Into Data Challenge> 발표
- 2010년: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역할과 무슬림이 세계 문화에 기여한 문제를 검토하는 공공 포럼 <Bridging Cultures>의 첫 그랜트를 수여함
- 2011년: 35,000회의 노예 수송 기록을 담은 NEH 지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Atlas of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미국출판협회에서 수상함
- 2012년: 미국 지역 영어 사전(Dictionary of American Regional English, DARE)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권이 출판됨
- 2013년: 240만 권 이상의 디지털 책, 원고, 사진, 지도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하는 디지털공공 도서관(DPLA) 출범

연간 국립인문재단 예산²⁶⁾연간 국립인문재단 지원 프로젝트²⁷⁾

26) 1996년까지 예산 수치는 Stanley Katz, 「Rethinking the Humanities Endowment」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2001.01.05., B7-10면 인용.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수치는 국립인문재단이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 인용: <https://www.neh.gov/about/budget-performance>. 2022년부터 2024년 예산 수치는 각 연도 국회 예산 신청서 인용: <https://www.neh.gov/about/budget-performance>

27) 1997년부터 2020년까지 프로젝트 수치는 국립인문재단이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 인용: <https://www.neh.gov/about/budget-performance>

2 대표적 인문학(또는 인문학 포함 융복합 연구지원) 지원 프로그램 및 특징

가.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국립인문재단(NEH)은 미국 사회를 위해 학술연구, 교육, 문화유산 보존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65년 설립 이후로 미국 전역의 다양한 문화 및 교육 기관에 약 6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인문학을 통해 인간의 조건과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와 신념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미디어 리터러시와 시민 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민주주의, 인종차별, 기후 위기와 같은 중대 문제에 직면한 미국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NEH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국립인문재단법은 다음과 같이 재단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²⁸⁾ (1) 인문학 분야에서의 진보와 학문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장려한다. (2) 개인이나 단체와 협력하여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지원하여 미국의 인문학 연구와 교육 잠재력을 강화한다; 대출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3) 기관이나 개인과 협력하여 인문학 분야에서의 교육과 워크숍을 지원한다(이 권한에 따라 수여되는 펠로우십은 수여자가 선택한 적절한 비영리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문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수 있다). (4) 학술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프로그램과 연구를 개시하고 지원하며, 미국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 소수자, 도심, 농촌, 또는 부족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한다. (5) 국제 프로그램과 교류를 촉진한다. (6) 인문학 분야에서의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7) 단체와 협력하여 인문학에 대한 교육과 대중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한다. (8) 인문학 분야의 학문적 작품 출판을 지원한다. (9) 지리적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혜택이 국민에게도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10) 인문학에 대한 연구, 교육, 그리고 대중의 이해에 중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보존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촉진한다.

2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0/956#b>

2) 지원 대상²⁹⁾

국립인문재단(NEH)은 다양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 인문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그 외에도 연구 기관과 독립 연구자, 주와 지역 인문학 협의회 등도 NEH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미술관, 박물관 등의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는 인문학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 개발이나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 도서관과 공공 미디어 기관도 커뮤니티 교육과 인문학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965년 설립 이래로 NEH는 미국 전역의 대학교, 초중등교육기관, 박물관, 역사적 명소, 도서관, 공공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 연구 기관, 독립 학자, 주 및 관할 지역 인문학 위원회 등에 약 60억 달러의 지원금을 수여하였다.

3) 지원 내용³⁰⁾

NEH는 인문학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그랜트 프로그램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연구 그랜트: 인문학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 연구자나 단체에게 수여되며, 책, 학술 논문, 디지털 자료, 교육 자료 등의 형태의 결과물을 제출한다. (2) 교육 그랜트: 교육 기관, 교수 및 교사가 인문학 교육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3) 공공 프로그램 그랜트: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기관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원하며, 강연, 전시회, 영화 상영, 디지털 미디어 등을 포함한다. (4) 보존 및 액세스 그랜트: 기관이 인문학 자료를 보존하거나,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나. 프로그램 유형 및 특징

1) 연구자 지원³¹⁾

국립인문재단은 현재 9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연구자를 지원한다. <펠로우십>과 <여름 지원금>은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인문학 관련 다양한 연구 주제를 포괄한다. <디지털 프로젝트

29) <https://www.neh.gov/grants/listing>

30) <https://www.neh.gov/grants/listing>

31) https://www.neh.gov/grants/listing?f%5B0%5D=individual_or_organization%3AIndividual

펠로우십>, <퍼블릭 스칼라>, <동적 언어 인프라: 멸종 위기 언어 문서화 펠로우십>, <일본관련 사회과학 심층 연구 펠로우십>은 특정 주제 또는 분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며, <소수민족 대학 교수 지원금>, <흑인 대학 교수 지원금>, <히스패닉 대상 기관 교수 지원금>은 연구자의 소속 기관을 한정한다. 대표적 지원 프로그램 4개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펠로우십>

국립인문재단 펠로우십은 개별 연구자에게 최대 월 \$5,000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가 기획한 연구 주제에 대해 인문학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 연구의 가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펠로우십의 결과물은 학술 저서, 학술지 논문, 전자책, 디지털 자료, 주석이나 해설을 포함한 번역서 등을 포함한다. 연구주제 예시: “아시아 연구, 남중국에서의 다스포라와 제국, 1570–1850”, “르네상스 연구, 번역, 초국적주의, 그리고 초기 영어 인쇄 문화”.

<디지털 프로젝트 펠로우십>

디지털 프로젝트 펠로우십은 개별 연구자에게 최대 월 \$5,000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연구 주제와 적용된 방법이 전통적인 인쇄 또는 오디오-비디오 출판을 넘어서며,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문학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 연구의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프로젝트는 디지털 수단과 도구를 통해 해석을 포함한 학술적 논거를 전진시키는 것으로서, 결과물은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 도구 개발, 디지털화를 포함하는 학술 저서, 학술지 논문, 전자책, 디지털 자료, 주석이나 해설을 포함한 번역서 등을 포함한다. 연구주제 예시: “1877년 이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의 집단 대표에 대한 양적 분석”.

<퍼블릭 스칼라>

퍼블릭 스칼라 프로그램은 개별 연구자에게 최대 월 \$5,000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비평서, 창작물 출판을 위해 개별 연구자에게 연구, 글쓰기, 여행, 그리고 기타 활동을 지원한다. 학위취득과 무관하게 독립 작가, 연구원, 학자, 그리고 기자가 지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작가가 저서에 기반이 되는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인문학에 더 깊게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연구주제 예시: <유럽의 대학살 기원>, <100개의 지도를 통한 미국의 역사>, <서부가 어떻게 정복되었는가(미국 내전)>.

<여름 지원금>

여름 지원금 프로그램은 개별 연구자에게 최대 총 \$6,000를 2개월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와 출판 양성을 위해 마련된, 연구 초기 단계 또는 연구 마지막 글쓰기 단계에서 작은 지원금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에 적합한 지원금이다. 연구주제 예시: <거리를 위한 글쓰기, 다락방에서 글쓰기: 멜빌, 디킨슨, 그리고 사설 출판>, <프레임의 힘: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 재고찰>. <미국 남북 전쟁 이후 원주민 참전 용사 및 그 가족의 역사에 관한 연구>, <중세 서유럽에서 기독교 경건 관행에 대한 저렴한 종이의 영향에 대한 연구>, <1970년대 죄수 노조 운동에 관한 출판물>, <전자 컴퓨팅이 출현하기 전에 학술 문학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의 초기 사용에 대한 해설>.

2) 그룹 및 연구소 지원³²⁾

국립인문재단의 그룹 및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재단의 7개 분과(연구 프로그램 분과, 공공 프로그램 분과, 교육 프로그램 분과, 보존 및 접근성 분과) 및 부서(디지털 인문학 부서, 챌린지 프로그램 부서, 연방/주 파트너십 부서)에서 분담해서 다음과 같은 총 34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연구 프로그램 분과

<공동 연구> 최대 \$300,000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고 인문학의 새로운 탐구 방향을 모색하는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프로젝트는 인문학적 내용과 방법론에 중점을 두지만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와의 협업을 권장한다.

<학술 판본 및 번역서> 최대 \$300,000

문학, 역사, 철학 분야 등의 주요 인문학 텍스트의 학술 판본 또는 번역본을 공동으로 만드는 연구자를 지원한다. 편집 및 연구 수행 인건비, 원전 수집 경비, 편집, 번역, 디지털화에 필요한 자문비 등을 지급한다.

<독립 연구 기관에서의 펠로우 프로그램> 최대 \$565,000

독립 연구 센터,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추진하는 지적 교류 함양을 위한 인문학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 박물관 및 오모훈드로 미국 초기 역사 및 문화 연구소, 과학사 연구소,

32) https://www.neh.gov/grants/listing?f%5B0%5D=individual_or_organization%3AOrganization

Winterthur 박물관 및 센터와 같은 고등 연구 센터에 속한 인문학자를 위한 펠로우십 자금 등을 지원한다.

<고고학 및 민속학 현장 연구> 최대 \$150,000

고전, 예술사, 고고학, 지역학, 인류학 분야의 현장 조사, 원격 감지, 문서화/시각화, 발굴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흑인 남북 전쟁 참전 용사들이 설립한 내슈빌의 배스 스트리트 지역에 대한 고고학 조사와 19~20세기 거주민의 후손들이 전하는 구전 역사 수집, 고대 쿠시 왕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심지 중 하나인 수단 북부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제벨 바르칼(Jebel Barkal)에서 고고학 발굴 작업 등을 지원한다.

□ 공공 프로그램 분과

<공공 인문학 프로젝트> 최대: \$575,000

이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의 아이디어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프로젝트는 역사, 문학, 윤리, 미술사와 같은 학문에서 중요한 테마를 분석하기 위해 인문학을 활용해야 하며, 세 가지 카테고리(전시회, 역사적 장소, 인문학 토론)에 대해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921년 광산 전쟁 동안 노동자와 민권을 위해 싸운 웨스트버지니아 석탄 광부의 50마일 행진 경로를 표시하는 다양한 형식의 해설 투어가 지원된다. 공개 토론 프로그램 교부금은 뉴욕 주 전역에서 미국의 지역사회 및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는 일련의 공개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12개 뉴욕 박물관 간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주요 작품 공연에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공을 위한 디지털 프로젝트> 최대: \$800,000

이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화식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게임, 가상 환경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인문학 콘텐츠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중소기관 지원 공공 확산 프로젝트> 최대: \$25,000

이 프로그램은 역사와 문화의 수호자이며 평생 학습의 원천이자 커뮤니티 허브인 중소규모 문화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커뮤니티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디어 프로젝트> 최대: \$775,000

이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을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인문학 아이디어에 참여시키는 라디오 프로그램, 팟캐스트, 다큐멘터리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시리즈의 개발, 제작 및 배포를 지원한다. 이 기금으로 지원된 연구는 고대부터 20세기까지 영향력 있는 여성 철학자들에 초점을 맞춘 전국 라디오 프로그램 및 팟캐스트 시리즈의 언더라이팅, 박물관 전시회 보조금으로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주최하는 비잔틴 시대 북동부 아프리카의 예술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한 투어 전시 및 영구 소장품 갤러리의 재설치 및 재해석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스피드 아트 뮤지엄에서 개최하는 켄터키 예술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메소아메리카 미술에 관한 순회 전시 또한 지원한다.

□ 교육 프로그램 분과

<대학 지원 인문학 이니셔티브> 최대: \$150,000

대학에서 인문학 교육과 연구를 위한 새로운 또는 개선된 인문학 프로그램과 과목 개발을 지원한다. <전문대학 지원 인문학 이니셔티브>, <흑인 대학 지원 인문학 이니셔티브>, <히스패닉 참여 기관 지원 인문학 이니셔티브>, <소수민족 대학 지원 인문학 이니셔티브>는 유사한 주제에 대해 특정 종류의 대학을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고등교육 교육자 지원 연구소> 최대: \$220,000

전국의 대학 교수진이 모여 인문학의 중요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학문과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문 개발 프로그램이다. <초중등교육 교육자 지원 연구소>는 초등교육연구자를 위한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고등 교육에서의 인문학 중점조명> 최대: \$31,000

이 프로그램은 American Tapestry: Weaving Together Past, Present, and Future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중소 규모 대학의 소외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인문학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 30개를 지원한다. Stanly Community College의 인문학 과정을 개방형 교육 리소스로 전환하는 일을 포함, 새로운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교육 리소스 및 커뮤니티 참여 역량 강화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La Salle University의 스페인어권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 및

대학 진학 준비를 지원하는 인문학 중심 브리지 프로그램, Southern University와 Shreveport 주변의 역사적 흑인 커뮤니티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할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학 경험에 관한 커뮤니티 워크숍, 학생들의 직업 목표에 부합하는 언어 및 문학 과정을 설계하는 교수진을 돕기 위해 Modern Language Association이 주도하는 워크숍 및 강의 시리즈가 있다.

<인문학 연결> 최대: \$200,000

이 프로그램은 인문학 연구자와 다른 학문 분야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에서 인문학의 역할의 확장을 추구한다. 자연과학, 법학, 경영학, 컴퓨터과학, 데이터과학, 기술 중심 분야 등을 포함하여 비인문학 분야와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 프로젝트의 계획 또는 구현을 지원한다. 프로젝트는 인문학과 관련되지 않은 학문 분야의 접근 방식과 학습 활동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 기금을 통해 Purdue University의 공학 과정에 인문학적 방법과 조사 방식을 통합하는 기초연구, 캘리포니아 Saint Mary's College의 예술 보존 부전공 개설, Baldwin Wallace University에서 의료 및 건강 인문학의 새로운 부전공 개발된다.

<미국 역사와 문화의 이정표> 최대: \$190,000

이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 교사, 대학교수, 인문학 전문가들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 지역을 연구하고 인문학에서 장소 기반의 교육과 학습을 통합하기 위한 워크숍을 지원한다.

<전쟁 경험에 대한 대화> 최대: \$100,000

이 프로그램은 군대 복무와 전쟁의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는 인문학적 자료의 연구와 토론을 지원한다. 이 기금을 통해, 로드아일랜드 퇴역 군인을 위한 토론 프로그램 개발이 지원되며 전쟁과 군 복무 후 지역사회로 복귀한 경험을 역사, 문학, 영화 및 철학을 통해 탐사한다.³³⁾

□ 보존 및 접근성 분과

<연구 및 개발> 최대: \$450,000

이 프로그램은 국가의 문화유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물, 원고, 아날로그 녹음 및 디지털 자산 등의 자원에 대한 접근이나 보존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과제를 지원한다.

33) <https://www.neh.gov/grants/education/dialogues-the-experience-war>(전쟁경험에 관한 대화)

<인문학 컬렉션 및 참고자료> 최대: \$410,000

이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사 및 문화 컬렉션을 보존하고 접근성을 넓히는 데 기여하는 연구를 지원한다. 이 기금으로 지원된 연구는 체서피크 베이 지역의 노예 및 계약 노동자의 탈출 시도와 관련된 17세기 법원 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디지털화하고 생성하는 프로젝트, 미국의 종교 공동체가 보인 시대사적 반응을 문서화한 Religious News Service의 40년에 걸친 사진, 뉴스 스크랩 및 기타 자료를 보존하고 온라인화하는 프로그램, 알래스카 중남부의 치칼룬 원주민 마을의 문화 및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프로그램, 그레코로만 문화 및 로마 문화에 대한 최대 온라인 오픈 액세스 참조 컬렉션인 페르세우스 디지털 도서관(Perseus Digital Library)의 확장을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개발 등이 포함된다.

<보존 및 접근 교육 및 훈련> 최대: \$350,000

이 프로그램은 인문학 컬렉션에 대한 접근과 보존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중소기관 지원 보존 지원 그랜트> 최대: \$10,000

이 그랜트는 중소규모 기관들이 중요한 인문학 컬렉션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국립 디지털 신문 프로그램> 최대: \$325,000

이 프로그램은 1690년부터 1963년까지 출판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신문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문화유산 컬렉션 유지> 최대 \$500,000

이 프로그램은 문화 기관이 인문학 컬렉션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 저장 구획,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문화 및 지역사회 회복성> 최대: \$150,000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반의 노력을 지원하여 기후 변화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완화하고 문화 자원을 보호하며 문화적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동적 언어 인프라 - 멸종 위기 언어 연구 장기 그랜트> 최대: \$450,000

이 프로그램은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심층 탐구하는 연구를 지원한다.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와 협력하여 관리되는 이 지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를 기록하는 언어 자원에 관한 연구로서 현장 조사 및 준비에 자금을 지원한다. 오콜라호마 동부의 아메리카 원주민 머스코지 언어의 재활성화를 돕기 위한 온라인 사전 및 문법 작업을 지원하는 펠로우십, 10,000명 미만이 사용하는 티베트-버마어인 람캡 텍스트 코퍼스 제작 지원, 사람과 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주 및 재배치로 인한 언어 변화를 문서화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 디지털 인문학 부서

<디지털 인문학 발전 그랜트> 최대: \$675,000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이거나 실험적인 디지털 프로젝트, 인문학 디지털 인프라 향상과 설계(오픈 소스 코드, 도구, 플랫폼 등), 연구, 교육법, 학술 커뮤니케이션, 공공 참여에 대한 디지털 학문의 실천과 영향을 조사하는 평가 연구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 인문학 심층 연구소> 최대: \$250,000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인문학자와 전문가의 수를 늘리고 인문학 관련 고급 기술 도구와 방법론에 대한 지식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문학자, 대학원생, 도서관 사서, 박물관 직원, 컴퓨터 과학자, 정보 전문가 등을 모아 새로운 도구, 접근법, 기술을 학습하고, 인문학 미래 협력을 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파트너와 함께, 지적, 기술적, 실용적 전문성이 필요한 범과학적 팀을 지원한다.

<펠로우십 오픈 북 프로그램> 최대: \$5,500

이 프로그램은 전자책을 활용하여 교사, 학생, 학자, 일반 대중이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는 인문학 책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의 위험과 기회: 인문학적 관점> 최대: \$150,000

이 프로그램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문학적 관점을 통해 조사하는 연구를 지원한다.

□ 챌린지 프로그램 부서

<인프라 및 역량 구축 챌린지 그랜트> 최대: \$1,000,000

이 프로그램은 인문학 기관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의 핵심 활동에 대한 장기 지원을 확보하고 뛰어난 인문학 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존하고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방 기금을 지원한다. 지원된 사업은 연방 기금을 활용하여 비연방의 주도(capital) 건설 및 개조 프로젝트와 문화 기관의 물리적 및 디지털 역량 구축, 플로리다 주 윈터 파크에 있는 롤린스 미술관의 새 건물 건설 등을 포함한다. 기타 교부금은 중앙 액세스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카고 대학 도서관 및 학술 부서가 관리하는 200개 이상의 개별 디지털 컬렉션 및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 통합 사업을 지원한다.

<기후 스마트 인문학 기구> 최대: \$300,000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 기관이 에너지 감사, 위험 평가, 자문 회의와 같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기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극단적인 사건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의 우선순위를 두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연방/주 파트너십 부서

<주 및 관할 지역 인문학 위원회 운영 지원 그랜트>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인문학 위원회에 일반 운영 지원금을 제공한다. 각 주의 지역 인문학 위원회의 지원과 프로그램을 관할 지역의 필요성, 자원, 관심사에 맞게 조정하고, 국립인문재단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한다.

3) 인문대학 학부 학생 지원

국립인문재단은 주로 학자, 교사, 대학, 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문화 기관 등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므로 직접적으로 학부생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이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학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개발 그랜트를 통해 새로운 또는 개선된 교육과정이 제공될 수 있다. 인문학 이니셔티브는 인문학의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그랜트로, 학부 과정의 연구 또는 학문 외 활동의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름 세미나 및 연구소 지원은 일반적으로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학부생을 받거나 조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재단이 지원하는 전시회, 강연,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교, 인턴십, 근로장학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 또는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있다.

다. 우리나라 유사 프로그램과의 비교 및 변별점

미국 국립인문재단(NEH)의 지원 프로그램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문학 연구지원 재단인 한국연구재단(NRF)의 프로그램은 국립연구재단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 차이를 보인다.

1) 정책 결정 방식

NEH는 독립된 연방기관으로서 대통령 임명직인 재단 의장(Chair)이 역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상원에 의해 승인된 26명으로 구성된 국립인문학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Humanities)의 자문을 받아 운영된다.³⁴⁾ NEH는 연방 정부의 자금을 받지만, 자금을 어떻게 할당하고 우선 순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자율성을 지닌다. 독립적인 기관인 NEH는 연방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아 입법을 통해 예산 편성을 한다. 재단의 의회 사무국(Office of Congressional Affairs)은 상원과 하원의 연관 위원회 및 사무국과 직접 협력한다.³⁵⁾ NEH는 지원하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포함한 예산 신청안을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와는 별개의 연구진흥에 특화된 기관으로서, NEH의 설립은 인문학 육성을 명시한 “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Humanities Act of 1965” 법안에 근거한다.³⁶⁾ 재단의 독립성은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 of 1950” 법안에 근거하여 1950년에 설립된 국립과학재단(NSF)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³⁷⁾

34) <https://www.neh.gov/about/national-council-on-the-humanities>

35) <https://www.neh.gov/about/chairman/congressional-affairs/statement-pur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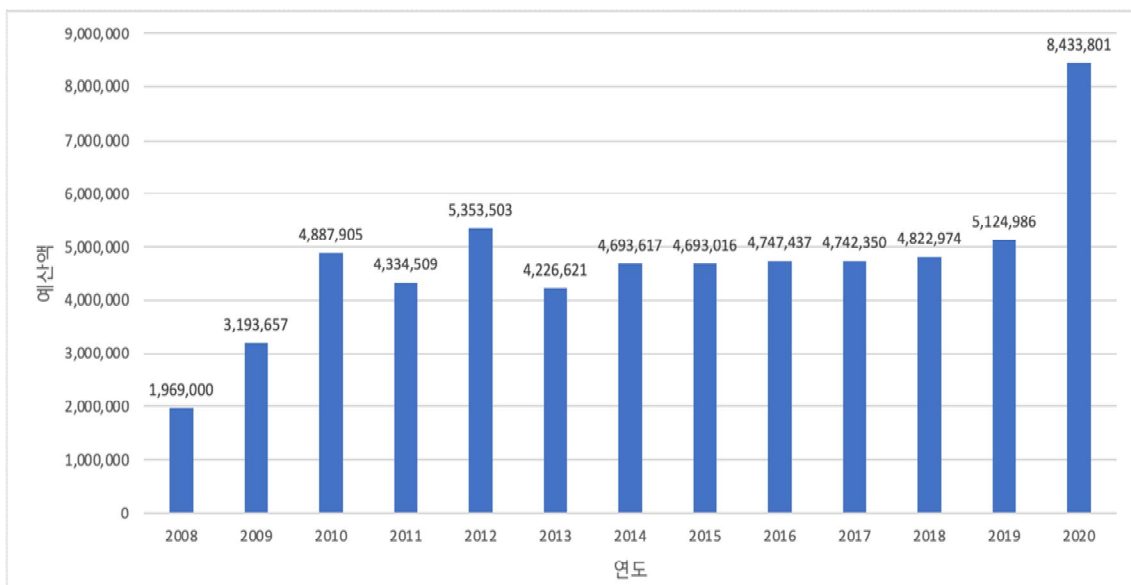
36) <https://www.neh.gov/about/history/national-foundation-arts-and-humanities-act-1965-pl-89-209>

2) 특화 프로그램 지원

NEH는 일반 프로그램과 더불어 특정 연구 주제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2023년 기준 총 9개의 개인연구와 총 34개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중 <펠로우십>, <여름 지원금>, <공동연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특정한 연구, 개발, 교육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특정 종류의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근거는 의회 제출 예산 신청서에 상세히 제시된다.³⁸⁾

3) 디지털인문학 분야 지원

NEH는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과 접근법을 탐색하고 있다. 2008년 기존의 총 6개 분과 및 부서 체제(연구, 공공, 교육, 보존 및 접근성, 챌린지, 연방/주 파트너십)에 디지털인문학 전담 부서를 새로 설치해 총 7개 분과 및 부서 체제로 개편하였다. 전담 부서를 통해 디지털인문학 육성 정책의 수월성을 높였다.³⁹⁾



연간 디지털인문학 부서 예산⁴⁰⁾

37) <https://new.nsf.gov/about/history>

38) <https://www.neh.gov/about/budget-performance>

39) https://www.neh.gov/sites/default/files/inline-files/2008_neh_annual_report.pdf

40) <https://www.neh.gov/about/budget-performance>

3 최근 정책동향 및 시사점

가. 미국 NEH의 최근 인문학 연구지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1) 미국의 최근 인문학 연구지원 정책 동향

미국의 인문학 연구지원 기관인 NEH는 지난 수년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책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지원 확대

디지털 인문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인문학 연구를 수행하거나, 인문학적 방법을 이용해 디지털 기술을 분석하는 분야로, NEH는 이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인문학 특집 시리즈를 시작으로 디지털인문학은 차세대 인문학으로 지난 십여년간 집중 조명을 받았다.⁴¹⁾ 또한 학계에서 다양한 토론과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냈다.⁴²⁾ 국립인문재단은 이러한 동향에 발맞춰 2008년 특정 학문분야로서는 유일하게 독립된 디지털인문학 전담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

NEH는 인문학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고, 사회가 인문학적 문제와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NEH는 기후위기, 인공지능 등 당면한 주요 쟁점에 대해 인문학적 접근을 적극 지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사회 전체에서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시사점 및 우리나라 인문학 위기 극복 대안

미국의 인문학 연구지원 정책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인문학 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41) 관련 기사: <https://www.nytimes.com/2010/11/17/arts/17digital.html>,
<https://www.nytimes.com/2015/02/14/opinion/digitizing-the-humanities.html>

42) 개론서: James O'Sullivan, The Bloomsbury Handbook to the Digital Hu

□ 학제간 융합연구 지원 확대

인문학적 주제를 학제간 연구를 통해 접근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 국립인문재단의 디지털 인문학 집중 지원의 경우에서와 같이 미래 인문학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문학 연구와 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더 많은 연구자와 교육자가 인문학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인문학 연구의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고, 인문학적 문제와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에서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 교육기관과 개인 연구자를 넘어서, 지원 대상에 방송, 언론 기관, 박물관, 문화 기관 등이 포함된 인문학 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문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인문학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기관 주도 연구 확대

미국의 인문학 연구지원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개인 연구자보다 기관 연구에 비중을 둔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수나 지원액 규모도 기관 연구가 압도적이지만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체적 지원 내용 면에서도 확실히 기관을 통한 인문학 실천 및 발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American Tapestry: Weaving Together Past, Present, and Future” 기관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의 역사적이고 동시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 하는 인문학을 추진하는 점이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다음 프로그램을 보면, “American Tapestry”가 어느 정도의 과제 구체성과 공동체 안팎의 시의성을 근거로 지원 정책을 입안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술의 위험과 기회: 인문학의 관점(Dangers and Opportunities of Technology: Perspectives from the Humanities)>, <더 완벽한 통합(A More Perfect Union)>, <인문학 집중 고등교육(Spotlight on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 <문화와 공동체 회복력(Cultural and Community Resilience)>, <스마트 기후 인문학 기관(Climate Smart Humanities Organizations)>, <시민 교육에 대한 미국 민주주의 이니셔티브를 위한 교육(Educating for American Democracy Initiative on Civics Education)>, <문화를 통한 연결(United We Stand: Connecting Through Culture)>

위 프로그램의 키워드만 고려해도 NEH의 인문학 지원 정책 방향이 단순히 고전 인문학의 중요성을 표방하면서 학문 내적이고 자기 지시적인 연구를 답습하거나 추상적 이론에 매이지 않는 인문학 연구 지형을 도모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문학 집중조명 고등교육’에서 주목할 점은 고등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커리큘럼 개발, 교수진 역량 강화, 교육 자원 개발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성과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나. 기타 정책적 제언

본 조사를 통해 미국 국립인문재단의 정책적 바탕과 2023년 기준 연구 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NEH에 대해 완벽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조사다. 다만 본 연구자 입장에서 국내 인문학 및 인문학 포함 융복합 연구의 발전을 위해 참고할 점, 제언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 지원 방향과 정책 지향점이 NEH의 경우처럼 ‘명시적으로’ 동시대, 역사, 글로벌 사회, 국가, 공동체, 교육기관, 소규모 집단 등을 위한 의제를 통해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이는 인문학 연구자 개인의 지원과제에서 다루지는 연관 주제를 포괄하면서 나아가 그러한 연구들을 진보적으로 견인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2021년 연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인문정신 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에서도 국내 인문학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문 정책 부족”⁴³⁾이 지적된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인문학의 향후 정책 제시에서 중요한 기조로 삼아야 할 점은 NEH처럼 지원재단(한국연구재단)과 인문학 분야의 정체성 및 역할을 자신 있게 표방하기, 그것을 바탕으로 시대적이고 현실사회적인 아젠다를 “인문학의 관점에서” 창안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것이다.

다음,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지원이 개인 연구자의 과제 선정을 넘어 NEH 경우처럼 대학의 개별 특성과 지역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 개발⁴⁴⁾, 비인문학과와의 연계 전공 창설, 다양한 교육 리소스 발굴 등으로 확장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 연구 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이 국내 열악한 학술 지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 무엇보다 인문학 전공자의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평가자로, 전문위원으로 학문후속세대(학술연구교수)의 공모 과정을 검토한 경험에 비춰 볼 때 국내 인문학 및 문화 융복합 연구들이 다소간 파편적이거나 중복된 내용이 많다고 생각한다.

43)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문화체육관광부, 2021.12.21., 4p.

44) <https://www.neh.gov/blog/announcing-new-odh-awards-january-2023>(NEH 디지털 인문학 사무국(ODH)의 새 지원대상자 발표), January 2023.

또한 지원 과제로 선정되더라도 개인 연구자는 애매한 학술연구교수 지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사회 내에서 인문학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 기여하는 바를 주장하기에는 부족하다. 국내 인문학의 발전과 인문학을 통한 사회 발전을 동시에 모색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NEH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틀로써 실행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참고할 것을 추천한다. 특히 고등교육 전반으로의 인문학 수렴, 인문학과 비인문학의 복합적 연결망 구축, 정책 환경의 변화에 상호작용하면서 동시대 및 미래 공동체를 위한 인문 연구(개인과 단체)의 특화가 필요하다.

이를 정책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중심의 일원화된 기획 및 평가 체계를 모든 학문에 적용하는 것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문은 분야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으며, 인문학 역시 주제, 방법론, 업적 등에 있어서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과 학문으로서의 인문학 연구에 적합한 기획 및 평가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영역이 정책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NEH와 같이 독립 인문재단으로서 분과 학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것이 정책의 수월성이 아닌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Ⅲ. 일본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1 개요

가. 조사의 필요성

동아시아의 인접 국가로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초중등교육은 물론이고 고등교육 및 연구 환경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두 나라의 근대학교교육이 일제강점기에 동일한 시스템으로 출발하였으며 또 해방 이후의 우리나라 교육이 일제의 시스템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형태로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변화가 교육정책에 반영되면서 한일 양국의 교육은 점차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각 나라의 실정과 지향점에 맞추어 교육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바뀌었지만 큰 맥락에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대에 들어서며 두 나라 모두 그때까지 행해져 온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초중등교육 정책을 혁신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지향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인성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향은 대학교육 및 연구에 대한 정책에서도 드러나는데 학령인구 감소나 신자유주의적인 사고 등으로 인해 대학이 위기를 맞았다고 일컬어지던 2010년대 이후 두 나라는 모두 인문학 분야와 지역대학의 개혁을 중심과제로 내세웠다. 한국은 2016년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을 비롯하여 2023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등 큰 사업을 통해 인문학 분야의 지원을 꾀하고 있다. “인문소양 강화”와 “인문학 진흥”을 내세운 CORE 사업⁴⁵⁾에 비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학문간 융합”과 “대학간 융합”을 토대로 인문학 교육과 연구의 융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⁴⁶⁾ 2010년대 후반에서 현재까지의 한국의 인문학 분야 지원책은 인문학 진흥에서 타 분야와의 융복합으로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4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 2015.12.22.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101372>)

46) 교육부 보도자료, 「2023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기본계획」, 2023.04.1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619&lev=0&m=0204>)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2015년 6월 국립대학에서 교원 육성계열 및 인문사회과학계열의 학부와 대학원을 폐지하고 융복합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하였다.⁴⁷⁾ 이 개혁안은 각계에서 반발이 일어남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였지만 그 후에도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꾸준히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교육 및 연구를 융복합으로 전환시켜 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⁴⁸⁾ 융복합 교육의 지향, 학제간 연구 지원, 리버럴 아츠(liberal arts) 교육 확대 등 최근 일본의 인문학 분야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면서도 몇 년 정도 앞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향에서 한발 빠르게 인문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일본이 인문학 연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인문학 연구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여겨진다.

나. 일본학술진흥회(日本學術振興會)의 개요

일본 정부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진흥을 내걸고 인문학 분야를 지원하고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문부과학성은 2002년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대하여-21세기에 기대되는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당면의 진흥방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21세기 인문학의 역할과 새로운 지평을 창출해 내고자 하였다.⁴⁹⁾ 이후에도 문부과학성은 시기별로 인문학 분야 지원체제를 구상하고 검토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⁵⁰⁾ 문부과학성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문학 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책을 검토하여 제시하면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바로 일본학술진흥회이다.

일본학술진흥회는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술진흥회법(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59호)’에 의거하여 “학술연구의 조성, 연구자 양성 및 자금의 지급, 학술에 관한 국제교류 촉진, 그 외 학술

47) 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新時代を見据えた国立大学改革」2005.10.01.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Files/fieldfile/2015/10/01/1362382_2.pdf)

48) 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国立大学法人等の組織及び業務全般の見直しについて」2021.07.05.

(https://www.mext.go.jp/content/20210705-mxt_hojinka-100014178_3.pdf)

49) 文部科学省 科学技術・学術審議会学術分科会「人文・社会科学の振興について-21世紀に期待される役割に応えるための当面の振興方策-(報告)」2002.06.11.

(https://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4/toushin/020601.htm)

50) 문부과학성이 설치한 위원회에는 2007년에 설치된 ‘인문학 및 사회과학 진흥에 관한 위원회(人文学及び社会科学の振興に関する委員会)’(제1-6기, 2007-2012)나 ‘인문학·사회과학 진흥 방식에 관한 워킹 그룹(人文学・社会科学振興の在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2018), ‘인문학·사회과학 특별위원회(人文学・社会科学特別委員会)’(2019-2023) 등이 있다.

진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된 문부과학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이다.⁵¹⁾ 2003년에 새로이 독립법인으로서 설립되었다고는 하나 1932년 쇼와천황(昭和天皇)이 하사한 학술장려금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일본학술진흥회로부터 시작되어 실질적으로는 90년이 넘는 역사가 이어져 온 기관이다. 첫 설립 이후 보다 효율적인 업무와 지원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재단법인에서 1967년 특수법인으로, 2003년에는 독립행정법인으로 성격을 바꾸었다.

일본학술진흥회가 신진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일본학술진흥회상(日本學術振興会賞)’이나 대학원 박사과정생에게 수여하는 ‘일본학술진흥회 육지상(日本學術振興会 育志賞)’의 시상식에는 천황의 동생인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부부가 참여하고 있다. 일본에서 높은 지위의 황족이 행사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 행사의 중요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데 현재 황위 계승 순위 1위의 아키시노노미야가 시상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본학술진흥회가 천황의 하사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학계를 대표하는 지원기관이라는 상징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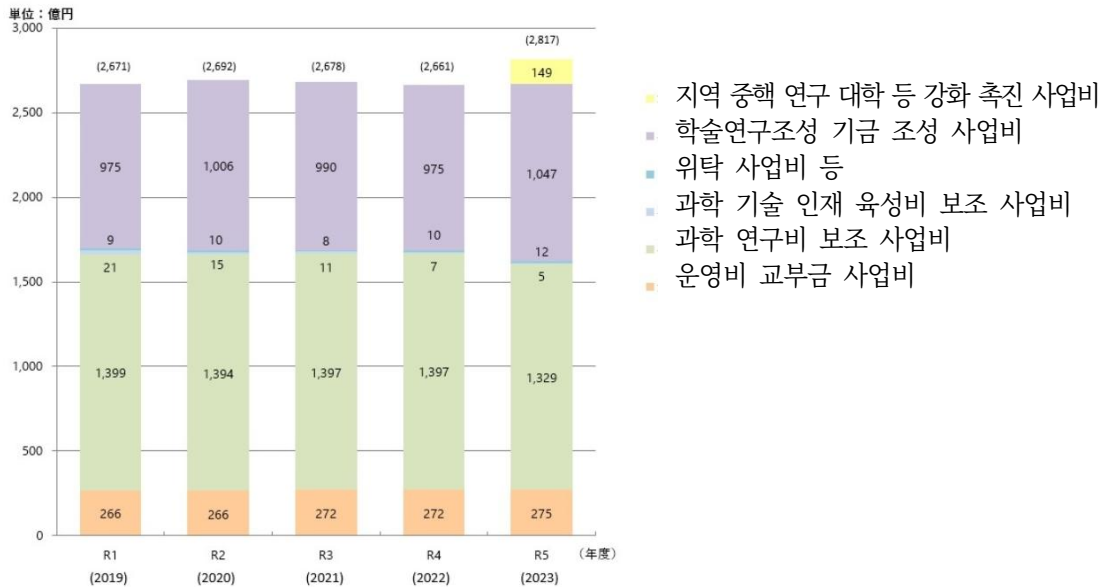
일본학술진흥회는 일본의 학술 진흥을 담당하는 중핵기관으로 문부과학성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연구자 및 학술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의 평의원으로는 오사카대학(大阪大学)이나 도호쿠대학(東北大学) 등 국립대학 총장과 와세다(早稲田), 게이오(慶應), 오차노미즈(お茶の水) 등 명문사립대학의 총장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대표적 경제인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게이단렌)의 회장과 경제동우회(経済同友会) 대표이사 역시 평의원으로 참가함으로써 학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도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1년 예산은 2023년 기준 2,817억 엔(円)이며 사업별 예산 규모 및 5년간의 예산 추이는 아래와 같다.

51) 이하, 일본학술진흥회에 대한 설명은 日本學術振興会ホームページ「日本學術振興会について」(<https://www.jsps.go.jp/j-purpose/>)에 따른다.

<표 1> 일본학술진흥회 2023년도 예산⁵²⁾

(단위 : 억 엔)

사업비	예산액
운영비 교부금 사업비	275
연구자 원조 사업비	193
학술 국제교류 사업비	59
학술 응용연구 사업비 등	7
학술 시스템 연구센터 등 사업비	6
관리 운영비 등	9
과학 연구비 보조 사업비	1,329
과학 기술 인재 육성비 보조 사업비	5
위탁 사업비 등	12
학술연구구성 기금 조성 사업비	1,047
지역 중핵 연구 대학 등 강화 촉진 사업비	149
합 계	2,817

[그림 1] 최근 5년간 사업별 예산액 추이⁵³⁾52) 日本学術振興会ホームページ「予算」(<https://www.jsps.go.jp/j-budget/>)53) 日本学術振興会ホームページ「予算」(<https://www.jsps.go.jp/j-budget/>)

2 대표적 인문학(또는 인문학 포함 융복합 연구지원) 지원 프로그램 및 특징

가. 일본학술진흥회 사업 개요⁵⁴⁾

일본학술진흥회가 전개하고 있는 사업은 (1) 연구조성사업, (2) 인재육성사업, (3)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 향상, (4) 학술국제교류사업, (5) 사회 연계 추진, (6) 표창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연구자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⁵⁵⁾에서 신진연구자 육성, 연구지원, 연구의 네트워크 형성, 성과확산 등 교육과 연구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각 사업의 개요를 자세히 살펴보면 (1)이 개인연구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중심이며 (2)가 신진연구자 육성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 (6)에는 앞에서 소개한 박사과정 학생 및 신진연구자를 위한 상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역시 신진연구자 육성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 (3)은 대학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인데 연구와 교육 방면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단일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국제교류 및 타 대학과의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4)에서는 연구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국제공동연구 형태와 연구인력을 파견하거나 초빙함으로써 인적 교류를 꾀하는 두 방향에서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5)는 산학연계 및 초중등교육현장과 연관된 홍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지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연구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넓혀가는 프로그램이 주가 되어 있다.

일본학술진흥회가 전개하는 지원사업에는 인문사회과학계열과 이공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이 많으며 몇몇 프로그램은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다. 다음에서는 인문사회과학계열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지원, 연구자 육성, 국제교류 사업으로 나누어 프로그램별 유형 및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54) 이하, 일본학술진흥회가 주관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은 日本學術振興會ホームページ(<https://www.jsps.go.jp/>)에 따른다.

55) 예를 들면 (5)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번쩍☆두근 사이언스 ~대학 연구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가켄히(ひらめき☆ときめきサイエンス~ようこそ大学の研究室へ~KAKENHI)’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켄히(科研費)라 불리는 연구비 지원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과학 분야 연구의 성과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초중등교육에서부터 과학연구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프로그램의 유형 및 특징

1) 연구지원 프로그램

① 과학연구비조성사업(科学研究費助成事業)

과학연구비조성사업, 줄여서 가켄히(科研費)로 불리는 이 사업은 일본학술진흥회가 전개하는 연구지원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개인연구 및 공동연구 모두를 지원한다. 가켄히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자연과학까지,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에 이르는 모든 연구에 걸쳐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8년까지는 문부과학성이 지원 및 심사, 협약을 주관하였지만 1999년에 일본학술진흥회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심사는 피어리뷰 형태로 진행된다.

가켄히의 연구비 지원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지원형태가 학술연구조성기금(學術研究助成基金)과 과학연구비보조금(科学研究費補助金)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학술연구조성기금은 여러 해에 걸친 연구 기간 전체에 지원되는 연구비가 기금형태로 운용되는 것이며 과학연구비조성금은 해마다 연구비가 집행되는 시스템이다. 가켄히의 연구과제 가운데 학술연구조성기금에 의한 것은 2020년도 기준으로 지원과제 수로는 약 80%, 지원액으로는 약 40%에 달한다. 연구비를 기금으로 운용하면 회계연도에 의한 제약이 없어지므로 연구 진행속도에 따라 전년도 예산을 미루어서 집행하거나 후년도 예산을 당겨오는 등 연구비의 유용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연구가 불가능해졌을 때 많은 과제가 예산을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켄히의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연구와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인 과학연구비(科学研究費) 등 지원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 대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가켄히 프로그램 일람⁵⁶⁾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	지원 구분
과학연구비(科学研究費)		
특별추진연구 (特別推進研究)	• 새로운 학술을 여는 실로 우수하며 독창성 있는 연구로 특별히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개인 또는 비교적 소규모의 공동연구로 행하는 연구 • 3년에서 5년간, 2억엔에서 5억엔까지(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7년간 또는 5억엔을 넘을 수 있음) • 2023년도에는 인문사회과학계열 1과제, 이공계 6과제, 생물계 3과제 선정	보조금
학술변혁영역연구 (學術變革領域研究)	(A) • 다양한 연구자의 공동가치창조와 융합에 의해 제안된 연구 영역에서 이제까지의 학술 체계나 방향을 선도적으로 크게 변혁·전환함과 동시에 일본의 학술수준의 향상 및 강화, 신진연구자를 육성할 수 있는 연구영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또 공동연구나 설비의 공용화 등을 통해 제안한 연구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 5년간 한 연구영역의 한 해 연구비가 5,000만엔에서 3억엔까지(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3억엔을 넘을 수 있음) (B) • 차세대 학술을 짚어질 연구자가 모인 소수·소규모 연구그룹(3~4그룹 정도)이 제안하는 연구 영역에서 보다 도전적으로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연구. 이제까지의 학술 체계나 방향을 선도적으로 크게 변혁·전환함과 동시에 일본의 학술 수준을 향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연구영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또 장래 학술변혁영역연구(A)로 발전할 것이 기대되는 연구 • 3년간 한 연구영역의 한 해 연구비가 5,000만엔 이하	보조금
기반연구(S) (基盤研究(S))	• 개인 또는 비교적 소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독창적·선구적인 연구 • 원칙상 5년간 5,000만엔 이상 2억엔 이하 • 2022년도 인문사회계열 5과제 선정	보조금

56) <표 1>은 日本學術振興會ホームページ「科学研究費助成事業(科研費) 研究種目・概要」(https://www.jsps.go.jp/j-grantsinaid/01_seido/01_shumoku/index.html)에 게재된 표를 바탕으로 2023년 현재 신규지원이 끝난 사업을 삭제하고 최근 선정결과 등을 더해 편집한 것임을 일러둔다. 프로그램의 대부분류는 칸을 회색으로 표기하였다.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	지원 구분
기반연구(A, B, C) (基盤研究(A, B, C))	- 개인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독창적·선구적인 연구 (A)는 3~5년간 2,000만엔 이상 5,000만엔 이하 (B)는 3~5년간 500만엔 이상 2,000만엔 이하 (C)는 3~5년간 500만엔 이하	A와 B는 보조금, C는 기금
도전적 연구(개척·맹아) (挑戦的研究(開拓・萌芽))	- 개인 또는 공동연구로 이제까지의 학술 체계나 방향을 크게 변혁·전환시키는 것을 지향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할 잠재성이 있는 연구 (맹아)는 탐색하는 성격이 강하거나 또는 이제 시작하는 맹아기의 연구를 대상으로 함 (개척) 3~6년간 500만엔 이상 2,000만엔 이하 (맹아) 2~3년간 500만엔 이하	기금
신진연구 (若手研究)	- 박사 학위 취득 후 8년 미만의 연구자의 개인연구 2~5년간 500만엔 이하	기금
연구활동 스타트 지원 (研究活動スタート支援)	- 직전 6개월 동안 연구기관에 채용된 연구자나 육아휴직 등에서 복귀한 연구자의 개인연구 1~2년간 매해 150만엔 이하	기금
장려연구 (奨励研究)	- 교육 및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소속된 자로 학술 진흥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의 개인연구 1년간 10만엔 이상 100만엔 이하	보조금
특별연구촉진비 (特別研究促進費)	긴급하며 중요한 연구과제의 조성	기금
연구성과 공개 촉진비 (研究成果公開促進費)	- 연구성과 공개발표 : 학회 등에서 발표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성과를 사회에 공개하거나 국제적으로 발신하기 위한 조성 - 국제 정보 발신 강화 : 학술단체가 학술의 국제교류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한층 더 강화된 정보를 발신하기 위한 조성 - 학술도서 : 개인 또는 연구자 그룹 등이 학술연구의 성과를 공개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학술도서의 조성 - 데이터베이스 : 개인 또는 연구자 그룹 등이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공개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조성	보조금
특별연구원 장려비 (特別研究員奨励費)	-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외국인 특별연구원을 포함)이 수행하는 연구의 조성 3년 이내. 특별연구원—CPD(국제경쟁력 강화 연구원(国際競争力強化研究員))은 5년 이내	기금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	지원 구분
국제공동연구 가속 기금(國際共同研究加速基金)		
국제선도연구 (國際先導研究)	- 일본의 우수한 연구자가 이끄는 연구그룹이 국제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높은 학술적 평가를 받는 연구성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박사후연구원이나 대학원생이 참가함으로써 장래에 국제적인 연구 커뮤니티의 중핵을 담당할 연구자 육성에도 이바지함 7년(10년까지 연장 가능) 5억엔 이하	기금
국제공동연구강화(A) 國際共同研究強化(A)	- 가켄히에 선정된 연구자가 반년에서 1년 정도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 - 기존에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계획을 현격히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자 양성에 이바지할 것을 지향 1,200만엔 이하	기금
해외연계연구 (海外連携研究)	- 복수의 일본 연구자와 해외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 - 학술연구의 발전과 함께 국제공동연구의 기반 구축과 강화,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연구자의 양성 등을 지향 3~6년간 2,000만엔 이하	기금
귀국발전연구 (帰国発展研究)	- 해외의 일본인 연구자가 귀국한 후에 수행할 예정인 연구 3년 이내 5,000만엔 이하	기금

② 과제설정에 따른 선도적 인문학·사회과학 연구 추진 사업

(課題設定による先導的人文学・社会科学研究推進事業)

과제설정에 따른 선도적 인문학·사회과학 연구 추진 사업은 문부과학성 산하 위원회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제시한 인문사회과학계열 연구지원 정책에 따라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I-2. 일본 학술진흥회의 개요 참조)

현재는 2018년에 발표된 보고서 「인문학·사회과학이 선도하는 미래사회의 공동가치 창출을 향해서(人文学・社会科学が先導する未来社会の共創に向けて)」와 2021년의 「인문학·사회과학을 축으로 한 학술 지식의 공동 창출 프로젝트(人文学・社会科学を軸とした学術知共創プロジェクト)」를 토대로 2021년부터 「학술 지식 공동 창출 프로그램(学術知共創プログラム)」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사회가 직면할 여러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답을 사회에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인문학·사회과학 고유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을 파고드는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어진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자 개인이 아닌 연구기관이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정하여 지원하는 형식이며 2023년 1월 시행된 지원신청에서는 총 4기관 선정 예정으로 연구 기간은 5년 9개월, 연구비는 총액 8,832만엔의 규모였다. 2023년에 제시된 연구과제는 (A) 미래의 인구 변동을 주시하는 사회·인간의 자세(将来の人口動態を見据えた社会・人間の在り方), (B) 분단사회의 초극(分断社会の超克), (C) 새로운 인류사회를 형성하는 가치 창조(新たな人類社会を形成する価値の創造)였다.

③ 인문학·사회과학 데이터 인프라 스트럭처 강화사업

(人文学・社会科学データ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強化事業)

인문학·사회과학의 데이터 공유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등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데이터 아카이브의 운영을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자간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일본 국내외의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

① 특별연구원(特別研究員)

특별연구원 제도는 박사과정 재학생 및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진연구자 육성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신진연구자가 자유로운 주제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자의 신분에 따라 DC1·2, PD, RPD, CPD로 나누어진다.⁵⁷⁾

DC1·2는 전 학문 분야의 박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DC1은 700명 선정에 박사 1년차부터 3년간 지원받으며 DC2는 박사 2년차와 3년차를 대상으로 1,100명을 선정하여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비는 달마다 20만엔씩 지급되며 DC1과 2는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PD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박사후 과정으로 3년간 달마다 약 36만엔이 지급된다. RPD는 육아를 이유로 3개월 이상 연구 생활을 중단한 박사학위 취득자가 대상이며 조건은 PD와 동일하다. CPD는 국제경쟁력 강화 연구원의 약칭으로 해외 대학연구기관에서 장기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PD 선정 연구자가 대상이다. 달마다 약 44만엔이 지급된다.

57) 이하 특별연구원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加藤麻樹他2人(2022)「若手支援セミナー企画・日本学術振興会 特別研究員制度について」『人間工学』58、一般社団法人 日本人間工学会、S1B2-01를 참고하였음.

특별연구원으로 선정될 경우 월액 지급에 더해 추가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가케히의 간접비 예산으로 1년당 최대 150만엔의 연구비가 지원되었으나 2021년부터 가케히의 특별연구원 장려비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특별연구원 장려비로 전환되면서 인문사회과학계열의 경우 보통 1년당 DC는 60만엔, PD와 RPD는 80만엔 이하로 연구비가 감액되었다.

② 해외 특별연구원(海外特別研究員)

해외 특별연구원은 우수한 신진연구자를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파견 기간은 2년간이며 왕복항공권과 체제비·연구활동비(연간 450~620만엔)가 지원된다.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자로 대학 등 학술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라면 전임과 비전임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전임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자는 지원할 수 없다.

2016년,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혼, 출산, 육아, 간병 등으로 인한 연구 단절을 막기 위하여 해외 특별연구원—RRA제도가 신설되었다. RRA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간병,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직한 경우 등의 이유로 90일 이상 연구 중단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미만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모든 조건은 해외 특별연구원과 동일하며 파견 시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사람 당 체제비·연구활동비의 10%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된다.

③ 신진연구자 해외 도전 프로그램(若手研究者海外挑戦プログラム)

이 프로그램은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재한 적이 없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해외 우수한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3~12개월 동안 파견하여 해외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왕복항공권과 체제비(100~140만엔), 연구활동비(파견 기관에서 청구하는 비용(bench fee)를 지원. 20만엔 상한)를 지원한다.

④ 탁월 연구원 사업(卓越研究員事業)

탁월 연구원 사업은 새로운 연구영역에 도전하는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이면서도 자립하여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산학관이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문부과학성이 실시하며 일본학술진흥회는 신청과 심사, 협약을 맡는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연구기관(대학 등 학술기관과 기업을 포함)이 전 학문 분야에 걸쳐 필요로 하는 연구원 포스트를 제시하면 심사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의 리스트를 공개한다. 공개된 리스트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일본학술진흥회에 희망 포스트에 지원을 하면 일본학술진흥회 쪽이 신청자 정보를 기업에 제공,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여 연구원을 선정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문부과학성과 일본학술진흥회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며 고용이 성사된 경우 기업과 연구자에게 일정 정도 지원을 해 준다. 탁월 연구원 사업은 연구자에게는 불안한 고용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자리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대학이나 공적 연구기관, 기업 등이 조직으로서 인재육성이나 커리어 형성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국제교류사업

① 양국간 교류사업(二国間交流事業)

일본학술진흥회와 협정을 맺은 타 국가의 연구기관 사이, 또는 일본과 국교를 맺은 나라와 두 나라 간의 다양한 학술교류사업을 의미한다. 주된 교류형태로는 소규모 그룹 또는 개인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나 세미나 및 연구자 교류(파견) 등이 있다. 공동연구와 세미나의 경우 여비 및 일반수용비, 인건비, 사례금, 통역비 등의 비용이 지원된다.

한국연구재단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한-일(JSPS) 협력사업(협력연구, 공동세미나)’ 역시 양국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② 국제공동연구사업(国際共同研究事業)

해외 학술진흥기관과 연계하여 일본의 연구자가 해외 연구자와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한 국가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자원의 공유나 연구설비의 공용화 등을 통해 상승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재 중국, 영국, 독일, 스위스, 미국, 서구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의 학술진흥기관과 연계한 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인문학 분야가 포함된 것은 영국의 연구이노베이션 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와 연계한 영국과의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JRP-LEAD with UKRI)과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 NSF)과 함께하는 국제 공동연구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国際共同研究教育パートナーシッププログラム, PIRE 프로그램) 등이 있다.

③ 외국인 연구자 초빙사업(外国人研究者招へい事業)

일본학술진흥회에서는 외국인 연구자를 초빙하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특별연구원(外国人特別研究員)과 외국인 초빙 연구자(外国人招へい研究者)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특별연구원은 일본과 국교를 맺은 국가의 연구자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6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12~24개월간 일본 연구기관에서의 연구를 지원한다. 지원 경비는 왕복항공권, 체재비(1개월당 약 36만엔), 정착지원금(20만엔), 해외여행자 보험 등이다. 외국인 초빙 연구자 프로그램은 중견에서 교수급의 연구자를 초빙하는 프로그램으로 단기(14~60일)와 장기(2~10개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왕복항공권과 체재비(단기는 하루당 18,000엔, 장기는 1개월당 약 39만엔), 여행자보험이 지원되며 그에 더해 조사연구비(15만엔 상한)이 지원된다.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부분은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자에 한해 일본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밟지 않더라도 논문제출만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논문박사학위 취득 희망자에 대한 지원사업(論文博士号取得希望者に対する支援事業)이 있다는 점이다. 또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연구나 자신의 나라에 대해 영어로 강의하는 사이언스·다이얼로그(サイエンス・ダイアロ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언스·다이얼로그는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외국인 연구자에게는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일본과의 접점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다. 우리나라 유사 프로그램과의 비교 및 변별점

일본학술진흥회의 인문학 분야 지원사업의 특징은 개인연구와 공동연구 지원을 크게 나누지 않고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인적 구성이 아닌 연구주체의 규모에 따라 예산을 고액에서 비교적 낮은 금액까지 나누어 지원하도록 설정한 것도 눈에 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을 취함으로써 연구주체에 맞게 자유로운 인적 구성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근래에 작은 규모의 지원사업부터 점차 지원금 지급 형태를 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예산 운용을 회계연도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의 진척에 맞추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움직임을 봐도 연구 환경의 다양한 제약을 없애고자 하는 일본학술진흥회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 사업을 나누지 않고 같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으면서도 별도로 운영되는 한국연구재단의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일 두 나라의 연구지원 사업이 가장 힘을 쏟는 것은 신진연구자의 육성과 연구장려일 것이다. 한국은 인문사회학술교수(A유형, B유형) 프로그램을 통해 박사학위 취득자뿐 아니라 석사학위 취득자와 연구기관 밖의 연구자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한편 일본은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박사학위 취득자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인 DC1·2는 인건비와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일본인 연구자와 같은 트랙으로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학술진흥회의 지원사업 중 한국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구나 공동연구는 연구의 규모나 주제에 따라 세분화·다양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연구지원사업은 연구소 중심의 연구가 아닌 개인연구나 공동연구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최근 정책동향 및 시사점

최근 일본의 인문학 분야 지원사업은 세 가지 방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신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 둘째는 결혼과 육아, 간병 등 ‘돌봄’과 관련된 사정으로 인한 연구 단절 극복, 셋째는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연구 및 글로벌 네트워킹이다. 둘째와 셋째 방향성은 한국의 인문학 분야 지원사업에서도 최근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에 있다고 여겨진다.

일본이 추진하는 인문학 분야 지원사업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신진연구자의 육성과 지원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이다. 신진연구자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생활비 및 연구비 지원과 박사학위 취득 후의 연구지원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하여 초·중등교육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게 하는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및 지역사회에 친근한 방식으로 ‘연구’의 개념과 저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이 고등교육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초중등교육에서부터 또 사회적으로도 ‘연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인문학 분야 지원사업에서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신진연구자 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다. 박사취득 후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서 PD 등의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오래전부터이지만 근래에 들어 ‘불안정한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강화하여 탁월 연구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안정한 연구 환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경제적인 불안정과 고용 불안정이다. 산학관이 연계한 탁월 연구원 사업처럼 최근 도입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은 이 두 가지 면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2023년부터 시행되는 연구 환경 향상을 위한 신진연구자 고용지원사업(研究環境向上のための若手研究者雇用支援事業)은 대학과 연계하여 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안정을 전면에 내세운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PD 지원사업이 일본학술진흥회가 직접 연구자를 고용하는 형태였다면 이 프로그램은 PD를 고용하고자 하는 대학 등의 연구 기관이 일본학술진흥회에 신청하여 고용지원금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 대학에서 직접 PD를 고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PD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경비(인건비 포함)는 일본학술진흥회가 부담하고 PD 신청자는 대학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급료를 받게 된다.

이전부터 있었던 PD 제도는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책임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대학 등에 소속 되는 형태였는데 소속 대학에 따라 공간 사용 등 처우가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학이 직접 고용하면 학내에 포스트와 연구 공간이 주어지기에 훨씬 안정된 연구 환경을 갖출 수 있다. 또 다양한 지원 형태가 도입되면서 PD로서 지원을 받는 연구자가 많아진다는 눈에 보이는 효과에 더해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고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대학에서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은 대학원 진학을 용이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이 경제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경우가 많다. 인문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가 가장 힘든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방향성이 설정된 점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연구 기피 현상과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학문후속세대 양성이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연구’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넓히고 산학관이 연계하여 ‘불안정한 연구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일본학술진흥회 지원사업의 방향성은 한국의 인문학 분야 지원 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IV. 프랑스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1 개요(인문학 분야 연구지원 기관 실태)

현재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은 국내 인문학 관련 정책 및 기획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인문학 관련 정책 및 기획 기관과 인문학 연구 지원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연구재단은 연구 평가 및 과제 관리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지원 기관의 성격이 강하므로 장기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한 인문학 분야를 위한 정책 수립과 전문 담당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인문학 분야의 경우, 해외 인문학 지원기관 현황에 관한 기초 자료나 연구지원 전문기관에 관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은 각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에 기반한 인문학 연구지원 전략이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의 연구지원 방식을 선행 사례로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장기 지속적인 연구지원 방향의 설계 및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일찍부터 인문학 연구지원 정책과 이를 기획 관리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인문학 분야 진흥 및 급변하는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1795년에 설립된 프랑스 국립 아카데미 기관인 프랑스 학술원(Institut de France)을 필두로 프랑스는 학문과 예술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프랑스 학술원은 상, 장학금, 보조금 지급을 통해 연구와 창작을 후원하는 재단들과 19세기 후부터 상속받은 자산과 수집품과 같은 중요한 유산을 보호·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학문과 예술을 국가 차원에서 후원하는 전통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은 1939년 10월 19일에 설립된 프랑스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2021년 기준 약 36억 유로 예산과 32,000명의 연구원 및 스태프를 두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며 프랑스 인문사회 및 이공계 분야를 포함한 10개의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Scimago 세계 연구기관 랭킹에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 1순위에 평가되었으며 2022년 10월 기준 세계에서 3순위를 차지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에 속한 10개의 연구소 중 하나인 인문사회 과학연구소(Institut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INSHS)는 프랑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연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공동연구단(UMR)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 교육 기관 하나 이상의 연구 실험실 또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국립 정보자동화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 INRIA) 등 연구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해 만들어진 연구기관이다. 일반적으로 대학 또는 고등 교육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등으로부터 재정 및 연구원 등을 지원받는 이른바 프랑스 연구기관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동연구 계약 기간은 2013년 7월 22일 법률 이후 4년, 현재는 5년의 다년 계약이다.

마지막으로, 1963년 역사가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주도로 처음 만들어진 인문과학원(MSH)을 주목해야 한다.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한 대학 및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23개의 인문과학원(MSH)이 있으며 대부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형성되었다. 인문과학원재단(Fondation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FMSH)은 60년 동안 사회가 직면한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인문과학원재단(FMSH)은 매년 전 세계에서 온 400명의 연구원을 지원하고 있다.

2 대표적 인문학(또는 인문학 포함 융복합 연구) 지원 프로그램 및 특징

가. 프로그램 개요

프랑스는 90년대 이후 인문학의 역할과 대중화, 그리고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지원 및 학문후속 세대 양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먼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에 속한 10개 기관 중 하나인 인문사회과학연구소(INSHS)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립과학연구원의 다른 9개의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의 국제화를 우선순위로 삼고, 유럽 외무부와 공동으로 해외 프랑스 공동 연구단(Unités Mixte des Instituts Français de Recherche à l'Étranger, UMIFRE)를 운영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연구자들의 국제 이동성을 고무시키고 있다.

대학 또는 고등 교육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등으로부터 공동 연구 계약 기간 동안 재정 및 연구원 등을 지원받는 공동연구단은 연구 주제별 연구소 및 공동 연구 단위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인문과학원은 지역 및 해외 프랑스어권의 인문학 분야 연구자들과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간적 확장성을 넓혀 나가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띤다. 오늘날 인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 속한 프랑스 학부나 석사과정 학생들이 유럽 공동 교육 및 연구에 참여하는 에라스무스 문두스(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Erasmus Mundus)는 인문학 분야 학문후속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프로그램 유형 및 특징

1) 연구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는 25,000명의 연구자들이 속해 있으며, 2022년 예산은 1800만 유로이다.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국립과학연구원과 공동 주관하는 공동연구단(UMR), 공동서비스단(Unités Mixte de Service, UMS), 연구서비스단(Unités de Service et de Recherche, USR), 연구연합(Fédérations de Recherche, FD) 등 여러 공동 연구를 위한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 속한 연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⁵⁸⁾

연구원(chercheurs), 교육-연구원(enseignants-chercheurs)와 CNRS와 연계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원	9,737명(CNRS에 속한 1,671명 포함)
엔지니어와 기술자	2,570명(CNRS에 속한 1,279명 포함)
박사와 post-doctorants	11,500명

프로젝트 유형별 인문사회연구소/주관 기관 참여현황(2022년)⁵⁹⁾

프로젝트 유형	책임자수	연구원 수
국립연구원(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ANR)	182	537
다양한 국가 기구	81	335
행정부서	58	143
유럽	54	202
국립과학연구원(CNRS)	51	112
미래투자기관	46	131

58) <https://www.inshs.cnrs.fr/fr/inshs> (2023년 6월 21일 검색)

59) <https://www.inshs.cnrs.fr/fr/inshs> (2023년 6월 21일 검색)

프로젝트 유형	책임자수	연구원 수
지역	44	89
다양한 국제기구	27	333
재단	24	31
대학	16	44
연구소	12	97
인문과학원(MSH)	11	25
고고학 단체	9	59
시설기관	1	58
총계	616	2,196

인문사회연구소는 200개 이상의 연구 단위와 300개에 가까운 연구기관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인문사회연구소의 '사회와 그 상호 작용에 대한 공개 모니터링(Suivi Ouvert des Sociétés et de leurs Interactions, Open Monitoring of Societies and their Interactions, SOSI)'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의 장기 지속적인 연구를 동반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 목적으로 한정된 지리적 또는 제도적 공간에 있는 주민들, 영토적 또는 지역적 집합체, 협회, 직업, 예술 커뮤니티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해당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 결과물은 대중들에게 오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백과사전 등을 제공된다. 인문사회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관련 연구자들은 논문이나 서적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다.

2) 그룹과 연구소 지원

① 공동 연구단(UMR)

프랑스 국립과학원과 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 등 주요 연구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인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공동연구단(UMR)은 2018년 3월 기준 총 83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인문학 분야 관련 공동연구단(UMR)>⁶⁰⁾

UMR번호	UMR이름
UMR5648	Histoire et archéologie des mondes chrétiens et musulmans médiévaux
UMR7117	Laboratoire d'histoire des sciences et de philosophie – Archives Henri Poincaré
UMR8025	Centre d'histoire judiciaire
UMR171	Laboratoire du Centre de Recherche et de Restauration des Musées de France
UMR200	Institut de recherche sur le patrimoine musical en France
UMR5037	Institut d'histoire de la pensée classique
UMR5062	Institut d'Asie orientale
UMR5115	Les Afriques dans le monde
UMR5136	France méridionale et Espagne : histoire des sociétés du Moyen Âge à l'époque contemporaine
UMR5140	Archéologie des sociétés méditerranéennes
UMR5186	Institut de recherche sur la Renaissance, l'Âge Classique et les Lumières
UMR5189	Histoire et sources des mondes antiques
UMR5190	Laboratoire de recherche historique Rhône-Alpes
UMR5199	De la Préhistoire à l'Actuel : Culture, Environnement et Anthropologie
UMR5607	Ausonius : institut de recherche sur l'Antiquité et le Moyen Âge
UMR561	Littérature, idéologies, représentations aux xviii ^e et xix ^e siècles
UMR6258	Centre de Recherche Historique de l'Ouest
UMR6273	Centre Michel de Boïard – Centre de recherches archéologiques et historiques anciennes et médiévales
UMR6298	Archéologie, Terre, Histoire et Sociétés
UMR7041	Archéologies et Sciences de l'Antiquité
UMR7044	Archéologie et histoire ancienne : Méditerranée et Europ
UMR7172	Atelier de Recherche sur l'Intermédialité et les Arts du Spectacle
UMR7184	Institut d'histoire du droit
UMR7192	Proche-Orient, Caucase : langues, archéologie, cultures
UMR7194	Histoire naturelle de l'Homme préhistorique
UMR7207	Centre de Recherche en Paléontologie – Paris
UMR7219	Laboratoire de Sciences, Philosophie, Histoire Philosophie, Histoire
UMR7264	Cultures et Environnements. Préhistoire, Antiquité, Moyen Âge
UMR7269	Laboratoire méditerranéen de préhistoire Europe-Afrique
UMR7297	Textes et documents de la Méditerranée antique et médiévale
UMR7298	Laboratoire d'archéologie médiévale et moderne en Méditerranée
UMR7302	Centre d'études supérieures de civilisation médiévale
UMR7306	Institut de Recherches Asiatiques sud-est asiatique
UMR7310	Institut de recherches et d'études sur le monde arabe et musulman

UMR번호	UMR이름
UMR7323	Centre d'études supérieures de la Renaissance
UMR7528	Mondes iranien et indien
UMR8025	Centre d'histoire judiciaire
UMR8041	Centre de recherches sur le monde iranien
UMR8058	Centre d'histoire sociale du xxe siècle
UMR8061	Centre Léon Robin de recherche sur la pensée antique
UMR8066	Institut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UMR8083	Centre d'Études des Mondes Russe, Caucasiens et Centre-Européen
UMR8096	Archéologie des Amériques
UMR8132	Institut des textes et manuscrits modernes
UMR8138	Identités,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civilisations de l'Europe
UMR8150	Centre André-Chastel : Laboratoire de recherche en histoire de l'art
UMR8152	État, religion et société dans l'Égypte ancienne et en Nubie
UMR8155	Centre de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de l'Asie orientale
UMR8164	Histoire, Archéologie, Littérature des Mondes Anciens – Institut de Papyrologie et d'Égyptologie de Lille
UMR8167	Orient et Méditerranée, textes – archéologie – histoire
UMR8168	Mondes Américains : Sociétés, Circulations, Pouvoirs, xve – xxie siècle
UMR8170	Centre Asie du Sud-Est
UMR8171	Centre d'études des mondes africains
UMR8173	Chine, Corée, Japon
UMR8177	Institut interdisciplinaire d'anthropologie du contemporain
UMR8210	Anthropologie et Histoire des Mondes Antiques
UMR8216	Centre d'études interdisciplinaires des faits religieux
UMR8529	Institut de recherches historiques du Septentrion
UMR8533	Institutions et dynamiques historiques de l'économie
UMR8546	Archéologies d'Orient et d'Occident et Sciences des textes
UMR8547	Pays germaniques (Histoire, Culture, Phi, Philosophie)–Transferts Culturels
UMR8558	Centre de recherches historiques
UMR8564	Centre d'Études de l'Inde et de l'Asie du Sud
UMR8566	Centre de recherche sur les arts et le langage
UMR8582	Groupe Sociétés, Religions, Laïcités
UMR8589	Laboratoire de Médiévistique occidentale de Paris
UMR8596	Centre Roland Mousnier Histoire et Civilisations
UMR8599	Centre d'étude de la langue et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s des xviie et xviii siècles
UMR9993	Centre de recherches archéologiques Indus – Baluchistan – Asie centrale et orientale

이 중 인문학과 사회과학 관련 공동연구단은 인류학, 고고학, 지리 및 인구통계, 역사, 언어기호학, 문화구성요소학(밈연구), 철학, 심리학, 인지공학, 종교학과 경제학 등을 포함한다.

공동연구단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과 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으로부터 계약 기간 동안 인적 또는 재정적 자원을 제공받으며 ‘공동관리’된다. 공동연구단은 대학 총장단 회의 (Conférence des Présidents d’Universités, CPU)와 인적 또는 재정적 지원기관들 사이에 협정 체결로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

기관	국립과학 연구원 (CNRS)	국립보건 의료연구소 (INSERM)	국립농업 연구원 (INRA)	국립정보 자동화연구소 (INRIA)	국립농업환경 공학연구소 (IRSTEA)
협정 체결 날짜	4/11/2010	4/11/2010	24/09/2009	17/12/2009	4/02/2010

공동연구단은 연구 주제에 따라 연구자들을 조직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관들의 인적·재정적 지원을 동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기초 인문학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인문과학원(MSH)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단 조직과 연구자 지원이 특징인 공동연구단과는 달리 인문과학원은 프랑스 전 지역을 포함한 프랑스어권까지 포함한 공간적 확장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지방 혹은 프랑스어권 해외에 거주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학문의 보호와 성장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⁶¹⁾

MSH-LSE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Lyon St-Étienne
MSHB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en Bretagne à Rennes 2
MSH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Ange-Guépin à Nantes, Angers et Le Mans
MSH Mondes	Maison Archéologie et Ethnologie René-Ginouvès avant 2020) à Nanterre
MISHA	Maison Interuniversitaire des Sciences de l'Homme - Alsace à Strasbourg
MMSH	Maison Méditerranéenne des Sciences de l'Homme à Aix-en-Provence

60) 인문학 관련 UMR 요약 정리

https://fr.wikipedia.org/wiki/Liste_des_unit%C3%A9s_mixtes_de_recherche (2023년 7월 1일)

61) https://fr.wikipedia.org/wiki/Maison_des_Sciences_de_l%27Homme (2023년 7월 2일 검색)

MSHS-T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et de la Société de Toulouse
MSH	Maison de la Recherche en Sciences Humaines à Caen
MSH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 Alpes à Grenoble
FMSH	Fondation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à Paris
MSH PN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Paris-Nord à La Plaine Saint-Denis
MSH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Paris-Saclay
MSHS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et de la société à Poitiers
MSH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d'Aquitaine à Bordeaux
MSH-M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à Montpellier
MSH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à Dijon
MSHS Sud-Est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et de la société Sud-Est à Nice
MSH Lorraine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à Nancy et Metz
MSH Clermont-Ferrand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de Clermont-Ferrand (maison de la Recherche en lettres, langues et sciences humaines de 1999 à 2004) à Clermont-Ferrand 4
MSH	Claude Nicolas Ledoux à Besançon
MSH Val de Loire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Val de Loire à Tours N 5
MESHS	Maison Européenne des Sciences de l'Homme et de la Société à Lille N 6
MSH du Pacifique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du Pacifique, Polynésie Française
MRSH	Maison de la Recherche en Sciences Humaines à Caen

2012년부터 고등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가 인정한 인문과학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킨, 이른바 '인문과학원네트워크'((Reseau National MSH, RNMSH)'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사이 및 외부의 혁신, 탐색, 구조화, 학제간 및 다학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021년에 시작된 건강 및 환경 위기라는 주제에 관련된 6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인문과학원네트워크가 표방하는 4가지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④ 중계 임무: 인문과학원은 (i) 인문사회과학의 초대형 연구 기반시설, (ii) 가치화를 위한 조율된 조치, (iii) 과학 및 기술 정보에 유리한 국가적 조치인 국가 시스템을 배치·고정
- ④ 공동 임무: 인문과학원은 그들이 다루는 모든 연구 단위, 국립과학연구원 및 대학에 공유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
- ④ 인큐베이션 임무: 인문과학원 젊은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학제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설정하고 필요한 훈련을 조직

- ④ 연맹의 임무: 인문과학원은 특정 프로젝트의 범위와 목표를 지정하고 이를 위해 참여할 유닛을 모으고 조정하는 역할 수행

3) 인문대학 학부 학생 지원

프랑스는 고등교육 과정의 학비가 없는 국가이다. 등록금(frais d'inscription)이라는 명칭의 납부금이 존재하지만 이는 엄밀하게 말해 학생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지원서류의 심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각종 행정 비용에 관한 것이다. 이 비용도 학부 과정은 1년에 170유로, 석사과정은 243유로, 박사과정은 380유로로 비교적 저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인문학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는 미약하다. 가정환경에 따른 생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는 모든 분야의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열려있다.

프랑스에서 인문 사회 분야의 지원은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약 4만 명 이상의 프랑스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분야의 학문 분야에서 유럽 공동 교육 및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재정지원을 통해 약 165억 유로가 투입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350개의 공동 석사 학위를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학생과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했다.

에라스무스 문두스 공동 석사학위(Erasmus Mundus Joint Master Degree)는 비유럽연합 국가를 포함하여 최소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공동과정으로 학생들은 최소 2개 국가 이상의 참여 고등교육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수해야 하며,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학생들이 받는 지원은 프로그램 참가비(사회보장 및 보험료, 도서관, 실험실 등 인프라 이용료), 정착 비용(이동을 위한 교통비), 생활비(월 1,000유로, 최대 2년)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 경제학, 역사학, 고고학, 문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 사회 계열이 참여하며 백신학, 미생물학, 인공지능 등 자연 계열 및 공학과 연계된 융복합 분야에도 인문사회계열이 참여한 공동 석사과정이 만들어졌다.

인문 사회분야 에라스무스 문두스 공동 석사학위 과정⁶²⁾

	공동학위 분야	참여 국가
1	양식산업, 환경과 사회(Aquaculture, environment and society)	프랑스, 그리스, 영국
2	법과 경제(Law and Economics)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이스라엘, 독일, 인도, 이탈리아, 폴란드
3	기술, 문화재, 산업공간: 역사, 재활용, 교육 (Technique, patrimoine Territoires de l'industrie: Histoire, valorisation, Didactique)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체코,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튀니지, 세네갈
4	법, 데이터, 인공지능 (Law,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5	사이버공간, 행동, E-테라피 (Cyberspace, behavoir and E-therapy)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6	세계화 경제와 유럽 통합(Economics of Globalisation and European Intergration)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 벨기에, 스페인, 중국, 에스토니아
7	무용 지식, 실습, 전승 (Dance Knowledge, practice and Heritage)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영국
8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y)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9	신생대 제4기와 선사시대 (Quaternary and prehistory)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10	농촌발전 (Rural Development)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독일, 스페인
11	글로벌 세계 속의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Latin America and Europe in a Global World)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12	언어와 의사소통 기술 (Language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프랑스, 독일, 몰타,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네덜란드
13	국제 백신 교육 (Leading International Vaccinology Education)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14	전염병과 원헬스 (Infectious Diseases and One Health)	프랑스, 스페인, 독일
15	초국적 이주 (Migrations Transnationales)	프랑스, 루마니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16	국제 인도적행동 (International humanitarian Action)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몰타, 네덜란드

62) https://www.eacea.ec.europa.eu/scholarships/erasmus-mundus-catalogue_en(2023년 7월 10일 검색)

	공동학위 분야	참여 국가
17	남유럽학(South European Studies)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18	세계화와 사회, 정치, 문화(Society, politics and culture in a Global Context)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독일, 스웨덴,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19	글로벌 이행기의 경제정책 (Economic policies for the global transition)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20	사전학(Lexicography)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21	아프리카학(African Studies)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22	문화지형, 문화재, 기억과 갈등 (Dynamics of cultural landscape, heritage, memory and confictualities)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23	유럽 문예 문화 (Cultures litteraire europeennes)	프랑스, 이탈리아, 인디아, 그리스, 세네갈, 포르투갈
24	친환경재생(Biorefinery)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25	사회복지 선행개발 (Advanced Development in Social Work)	프랑스, 덴마크, 영국, 폴란드, 포르투갈

다. 우리나라 유사 프로그램과의 비교 및 변별점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들과 학문후속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의 전략은 인문사회과학연구소를,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연구재단을 주기관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인문학 분야 지원 정책과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우리나라의 유사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자.

	프랑스	한국
기관	국립과학연구원(CNRS) • 인문학 연구지원 정책과 기획 관리 기관 • 인문학 분야 지원정책 수립 및 운영	한국연구재단(NRF) • 국내 인문학 관련 연구 평가 및 과제 관리 역할 중심의 연구지원 기관 • 인문학 분야 지원정책 수립과 운영 담당 기관 설립 필요

	프랑스	한국
연구자	- 국립과학연구원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는 25,000명의 연구자들이 속해 있음 - 이들 중 64%가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 - 인문학 분야 연구자들의 65% 이상이 연구 프로그램에서 연구 활동 지속	- 우리나라 인문학 연구자들은 주로 대학 기관에 속해 있음(전임/비전임) - 인문학 분야 연구 중심의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연구지원사업으로는 부족
그룹 및 연구소	- 공동 연구단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등 여러 연구 기관으로부터 계약 기간 동안 인적·재정적 자원 제공과‘공동 관리’ - 공동 연구단은 연구 주제에 따라 연구자들을 조직, 관련 기관들의 인적·재정적 지원을 동원하는 것이 특징 - 인문과학원은 공동 연구단과는 달리 프랑스 전 지역을 포함한 프랑스어권까지 포함한 공간적 확장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방 혹은 프랑스어권 해외에 거주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인문한국(HK)지원사업은 대학연구소의 연구 기반 구축 및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인문학 연구소를 육성 - 인문한국지원사업은 대학 인문학 연구소 내에 전임교수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소 중심의 인문학 연구 체제를 확립 -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은 인문한국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인문한국연구의 개선과 연구 성과 확산 지원
인문 대학 학부 학생 지원	- 등록금(frais d'inscription)이라는 명칭의 납부금은 학생의 권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지원서류의 심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각종 행정 비용에 관한 것 - 학부 과정은 1년에 170유로, 석사과정은 243유로, 박사과정은 380유로 - 현재 약 4만 명 이상의 프랑스 학생들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유럽 공동 교육 및 연구에 참여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대학생에 대하여 지원 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국가장학금 I 유형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

프랑스의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 그룹 및 연구소 보호, 인문대학 학부 학생 지원정책 및 기관 운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국가적 지원정책이다. 19세기 이후 국가가 주도하는 학문과 예술 보호 지원이라는 전통을 토대로 인문학 연구지원 정책과 이를 기획 관리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인문학 분야 지원정책 수립 및 운영을 하고 있다.

3 최근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가. 프랑스의 인문학 분야 지원정책 및 기관 동향

프랑스는 국립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특성화된 고등교육기관 사이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국립과학연구원과 대학 연구소 또는 특성화된 고등교육기관 및 전문기관과 대학 연구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을 강화하고 있다.

대학 연구소와 연구 지원기관 사이의 긴밀한 유기적 결합은 연구 아젠다의 종합적 완성도를 높이는 주요한 촉진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구시스템과 두드러진 차이점은 국립과학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들의 역할이다. 이들은 공동연구단에서 대학 소속 교수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석사 및 박사 학생을 지도하여 수준 높은 연구 성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인문과학원네트워크를 통해 인문학과 사회과학 사이 및 학제간 또는 다학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인문학과 함께 인문융복합 시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으로 연구의 국제적 협력과 확산을 통한 국제화 지수를 높임과 동시에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 분야를 포함한 학생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나. 우리나라 인문학 위기 극복 대안에 대한 제안

국립과학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들은 대학 전임 교원과 공공 기관 소속의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fonctionnaire)으로서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비전임 연구원의 단기 지원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인문 사회 연구지원 체계와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 전임 교원들은 책임시수라는 교육 활동과 함께 연구 활동을 진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처럼, 개인 연구 프로젝트 또는 공동연구소 프로젝트이든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지원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비전임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인문학의 발전과 인문학 관련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 본다.

현재 대학별 연구소를 기반으로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는 우리나라의 연구 지원 체계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거점 연구소를 빠르게 육성할 수는 있었지만, 학교별 연구소 중심의 이러한 시스템은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는 우수한 연구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손실이 크다.

인문학 연구의 국제화 지수와 성과 확산을 위한 제안 중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을 주목할 만하다. 현행 인문 사회 연구 지원체계에서 외국과의 교류는 거의 사적인 영역인 유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몇몇 소수의 장학재단이 이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국 학계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화는 BK21에 참여하는 사업단 위주로 소수의 연구소 위주로 실행되고 있으며, 경쟁을 통한 평가는 각 연구소의 관점에서는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역량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 후 연수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국제적 협력을 통한 연구를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며,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의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을 좋은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독일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1 개요

독일에서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Forschung)는 연방 차원에서 교육과 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며 유럽연합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육과 연구 협력을 담당한다.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진 독일은 총 16개 주정부의 고등교육 담당 부서가 자신의 지역 사회 상황에 맞추어 교육정책을 시행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주정부가 실질적인 교육행정을 담당한다. 동서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종합대학이 있는 베를린을 제외하고, 주요 도시에 종합대학은 한 개만 설립되어 있고, 이 대학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을 시행한다. 연방교육연구부는 각 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장학금이나 학자금 용자 등 고등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연방 내각 소속인 연방교육연구부와 교육부에 해당하는 각 주정부 소속 기관이 상호협력을 하며 모든 국민의 자기 계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과정에 해당하는 김나지움(Gymnasium) 졸업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합격하면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독일 대학은 평준화되었고, 대개 입학정원에 제한이 없으므로 아비투어에서 합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시험 점수는 일부 전공에서만 의미가 있다.

독일은 고등교육과정을 포함해 전 교육과정에 학비가 없다. 등록금(Semesterbeitrag)이라는 명칭의 납부금이 존재하지만,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교통권, 각종 공공 기관의 할인 등 지불한 비용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빌리 브란트 총리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1971년에 도입한 바팩(BAföG) 이라고 불리는 연방교육지원법(Das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에 의해 생활비가 지원된다. 부모님의 소득과 형제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이자가 없는 융자이며 취업 후 20년 동안 50%만 상환하면 된다. 성적 상위 30%에 속하는 학생들은 25%만 상환하면 된다. 또한 학생들은 25세까지 한 달에 약 200유로 정도의 자녀수당을 받는다. 이 외에도 독일 정부, 정당, 종교단체, 경제단체, 기업재단 등 수많은 기관이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용한다. 유럽연합 학생

교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 Programme)의 지원을 받아 유럽연합에서 학생과 교수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수학할 수 있다. 독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로 부모의 도움 없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독일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1957년에 출범한 학문협의회(Wissenschaftsrat)는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 간에 일어나는 주요 학문정책의 쟁점이나 현상에 대해 권고안과 전체 국가발전을 위한 대학개혁, 또는 학문 전반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⁶³⁾ 학문협의회는 다양한 보고서, 권고안, 의견서 등을 활발하게 출간하고 있는데, 이런 권고안과 의견서들은 독일의 학문정책과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문협의회는 32명의 학문위원회(die Wissenschaftliche Kommission)와 22명의 행정위원회(die Verwaltungskommission)로 구성된 총회에서 결정된다. 위원 수는 다르지만, 총회에서는 행정위원회도 32표를 동일하게 행사한다.

학문위원회는 다양한 연구소에서 추천한 24명의 학자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추천한 8명의 인물로 구성되고, 행정위원회는 각 주 정부 대표 16인 및 연방정부 대표 6인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약 100명의 사무국 직원을 두고 약 40~45개의 연구그룹을 운영하여 학문 위원회를 지원한다.

학문위원회는 이처럼 학자, 정치가, 사회 인사로 구성되고, 100여 명 연구원이 이들의 논의를 지원한다.

한국 인문학에 해당하는 독일의 “Geisteswissenschaft”는 직역하면 ‘정신학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 인문학에 해당하는 어문학, 철학, 역사뿐만 아니라 윤리학, 종교학, 연극학, 영화학, 음악학, 미술사학과 같은 예술학도 독일 인문학에 포함된다.

독일은 1810년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가 베를린에 대학을 창설하면서 근대적 대학의 모델을 제시했다. 훔볼트는 1809년 2월부터 1810년 6월까지 16개월간 프로이센(Prussia)의 문화교육 장관이었고, 칸트(Kant), 쉴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쉘레겔(Schlegel), 셸링(Schelling), 실러(Schiller), 피히테(Fichte) 등 당대의 뛰어난 인문적 지식인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베를린에 자신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대학을 설립하였다. 그는 “교육과 연구는 동일체다”라는 슬로건으로

63) 학문협의회에 관한 설명은 학문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wissenschaftsrat.de/DE/Home/home_node.html 참조.

대학에서 교육뿐 아니라 연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직업을 위한 실용 교육보다 인문학을 통한 보편적 인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문학에 토대를 두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를 강조한 훔볼트 대학은 2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다. 그러한 훔볼트의 교육 이념은 독일 전체에 영향을 주어 독일 대학에서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된다. 독일은 지방분권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 교육 및 문화 전반에서 지역적인 독자성과 고유성이 매우 강하고, 인문학 역시 각 지역의 특성과 강하게 결부되어 발전하였고, 인문학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유럽국가보다 뒤늦게 1871년에서야 비로소 통일된 독일에서 언어와 문화는 분열된 연방국가를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했다.

동독 문화부 장관과 서독 각 연방주의 문화담당자가 1990년에 체결한 서독과 동독 간의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35조의 문화 약관에서 독일은 국가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통일조약 1조 35항에서 문화예술이 통일의 지속적인 토대로써 동서독 양국이 통일하는데, 그리고 유럽이 통합하는 데 독자적인 공헌을 했다고 밝힌다. 통일된 독일이 세계에서 갖는 위상과 명망은 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능력 이외에도 문화국가(Kulturstaat)로서의 가치에 달려있다고 명시한다. 1980년대부터 문화학으로 확장한 인문학은 문화국가로서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독일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0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 주도로 학문과 사회 간 대화를 위해 학문의 해를 개설했다. 2007년은 연방교육연구부가 500만 유로를 지원해 “인문학: 사람다움의 가나다(die Geisteswissenschaften: ABC der Menschheit)”라는 슬로건으로 “인문학의 해”가 열렸다.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문학의 다양한 주제, 방법론, 성과, 잠재력, 매력을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저명한 인문학자들과 함께 1,000여 개의 경연대회, 전시, 강의, 낭독회,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계획을 “인문학을 위한 자유공간(Freiraum für Geisteswissenschaften)”이라고 명명하고 아래와 같은 세부 목적을 세웠다.

- 새로운 형식의 지원으로 연구자들에게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
- 사회에 인문학 연구의 중요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 인문학의 연구방법론을 발전시키고 자연과학 및 공학과의 연관관계를 강화하는 것.
- 인문학 연구의 국제화를 증진시키는 것.
- 매개자 및 번역자로서 인문학이 갖는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서 인문학은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첨단학문과의 융합연구의 토대가 된다. 독일은 2018년 연정 협약에서 인공지능, 로봇 공학, 양자 컴퓨팅 등과 더불어 디지털 인문학을 미래연구의 중심과제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독일 교육연구부가 eHumanities와 e-Heritage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고, 독일 연구협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 역시 디지털 인문학을 지원하기 위해 e-Research 등 별도의 경로를 설정했다.

인문학을 디지털 인문학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의 축적된 지식을 디지털과 관련된 연구방법으로 새로이 활용한다. 1980년대에 등장했던 문화학이 인문학의 한 방법론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디지털 인문학도 또 하나의 인문학적 방법론으로서 기존의 인문학을 확장한다. 디지털 인문학은 정보 기술의 환경에서 창조적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고, 그것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시킴으로써 보다 혁신적으로 인문 지식의 재생산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인문학 연구는 대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개의 연구협회, 9개의 아카데미, 연방정부 소관 연구기관(Ressortforschungsinstitute), 그리고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 등 수많은 연구기관이 독일 곳곳에 분포되어 네트워크를 이루어 수행된다.

독일 4대 연구협회인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라이프니츠 중 막스플랑크(MPG : Max Planck Gesellschaft)- 와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 : Wissenschaftsgemeinschaft Gottfried Wilhelm Leibniz)에서 인문학을 연구한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가장 뛰어난 교육과 연구 인프라를 갖고, 인문학은 독일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로 인해 독일 인문학은 세계적으로 높은 학문 수준을 인정받아 인문학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수로 임용되고, 또한 초청받아 독일은 인문학 교류의 중심에 서 있다.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 숫자도 크게 변동이 없고, 연구지원도 줄지 않아 독일에서 인문학은 건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인문학이 위기라는 주장은 분명히 담론으로 존재하고 있고, 학자들 사이에 자주 거론된다.⁶⁴⁾ 인문학의 위기라는 담론이 유행하는 이유는 인문학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저조해서가 아니라 교직원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서이다.⁶⁵⁾ 독일 교육제도는 주정부가 담당하는데, 교수나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의 숫자를 조절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⁶⁶⁾ 그런데 주정부에서

64) 송승철 외. 한국 인문학 정책 연구: 성찰과 대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119p.

65) 송승철 외. 한국 인문학 정책 연구: 성찰과 대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119p.

인문학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의 수요를 늘려주지 않아 교수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학문후속 세대가 대학에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인문학에 대한 지원은 보통 사회과학과 구분 없이 함께 이루어진다.

연방교육연구부 현재 프로그램인 “사회 이해 – 미래 형성 Gesellschaften verstehen, Zukunft gestalten”을 통해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지원이 1) 사회적 과제 해결: 응집력, 혁신 및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 강화, (2) 학문을 위한 설계 및 개발 공간을 형성, (3) 연구데이터 인프라 추가 개발이라는 중점과제 하에 2025년까지 이루어진다.⁶⁷⁾

베를린, 괴팅겐, 뮌헨, 라이프치히, 하이델베르크, 뒤셀도르프, 마인츠, 함부르크에 있는 8개의 아카데미가 연결되어 아카데미 연합 Akademienunion이 구성되어 있다. 연방교육연구부의 약 7,080만 유로의 지원으로 아카데미 연합에는 약 900명의 학자가 32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에서 주와 함께 연방교육연구부가 지원하는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WZB)

Leibniz-Institut für Sozialwissenschaften (GESIS)

Sozio-ökonomisches Panel (SOEP)

Institut für Zeitgeschichte (IFZ)

Leibniz-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IDS)

Leibniz-Zentrum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ZZF)

Leibniz-Institut Hessische Stiftung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HSFK)

Leibniz-Institut für Europäische Geschichte (IEG)

Leibniz-Zentrum Moderner Orient (ZMO)

Leibniz-Zentrum Allgemeine Sprachwissenschaft (ZAS)

Leibniz-Institut für Geschichte und Kultur des östlichen Europa (GWZO)

Leibniz-Zentrum für Literatur- und Kulturforschung (ZFL)

66) 송승철 외. 한국 인문학 정책 연구: 성찰과 대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119p.

67) 연방교육부에 관한 설명은 연방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bmbf.de/bmbf/de/home/home_node.html 참조.

Leibniz-Institut für Ost- und Südosteuropaforschung (IOS)

Leibniz-Institut für jüdische Geschichte und Kultur – Simon Dubnow (DI)

8개의 연구박물관

Deutsches Bergbau-Museum Bochum

Leibniz Institut zur Analyse des Biodiversitätswandels LIB (Museum Koenig Bonn, Museum der Natur Hamburg)

Senckenberg Forschungsinstitut und Museum (Frankfurt/Main)

Museum für Naturkunde (Berlin)

Deutsches Schifffahrtsmuseum – Leibniz-Institut für Maritime Geschichte (Bremerhaven)

Germanisches Nationalmuseum (Nürnberg)

Römisch-Germanisches Zentralmuseum (Mainz)

Deutsches Museum München

기관자금지원을 받는 5개의 기관

Max Weber Stiftung – Deutsche Geisteswissenschaftliche Institute im Ausland

Deutsche Akademie der Naturforscher Leopoldina (seit 2011 ist auch die Junge Akademieunter dem Dach der Leopoldina angesiedelt)

Deutsche Akademie der Technikwissenschaften (acatech)

Wissenschaftskolleg zu Ber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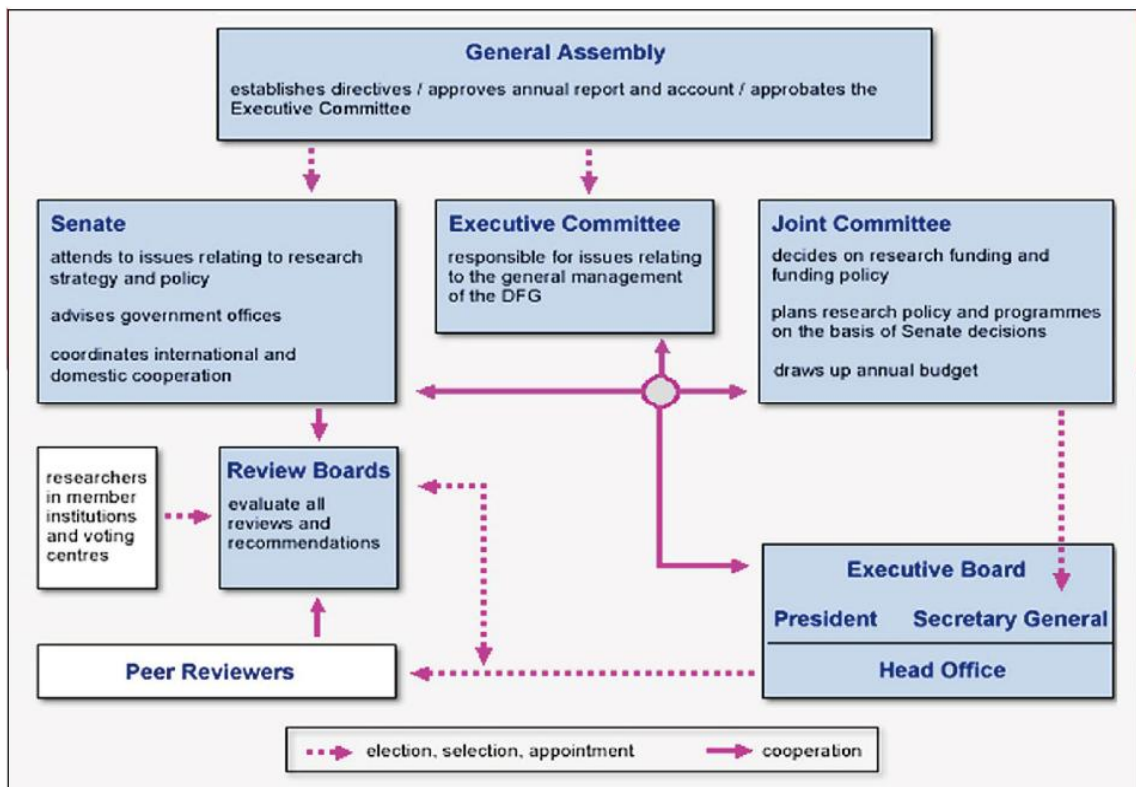
Deutsche Stiftung Friedensforschung (DSF)

독일에서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은 100여 개의 연구소 및 대학과 협력하는 비정부 기구인 본(Bonn)에 있는 독일연구협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이다.⁶⁸⁾ 이 기관은 1920년에

68) 독일연구협회에 관한 설명은 독일연구협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 홈페이지 <https://www.dfg.de/> 참조.

독일긴급학술협회(Notgemeinschaft der Deutschen Wissenschaft)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1951년에 연구평의회와 독일긴급학술협회 통합되면서 현재의 DFG로 출범했다. DFG는 중국, 인도, 일본,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러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그 지역의 학자 및 지원기관과 교류하고 협력한다.

학문적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DFG는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지만, 정부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조직이다. DFG 회원은 독일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 및 각종 학술단체고, 의장(President), 이사회(Board), 그리고 평의회(Senate)는 매년 개최되는 회원총회에서 선출된다. 심사위원도 학문적 공동체에 의해 전국적으로 선출된다.



[그림 2] DFG 조직도⁶⁹⁾

DFG는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간 39억 유로를 사용하는데, 예산의 70.4%를 연방정부로부터 28.7%를 주정부로부터, 나머지는 EU 기금 및 개인 기부금을 받는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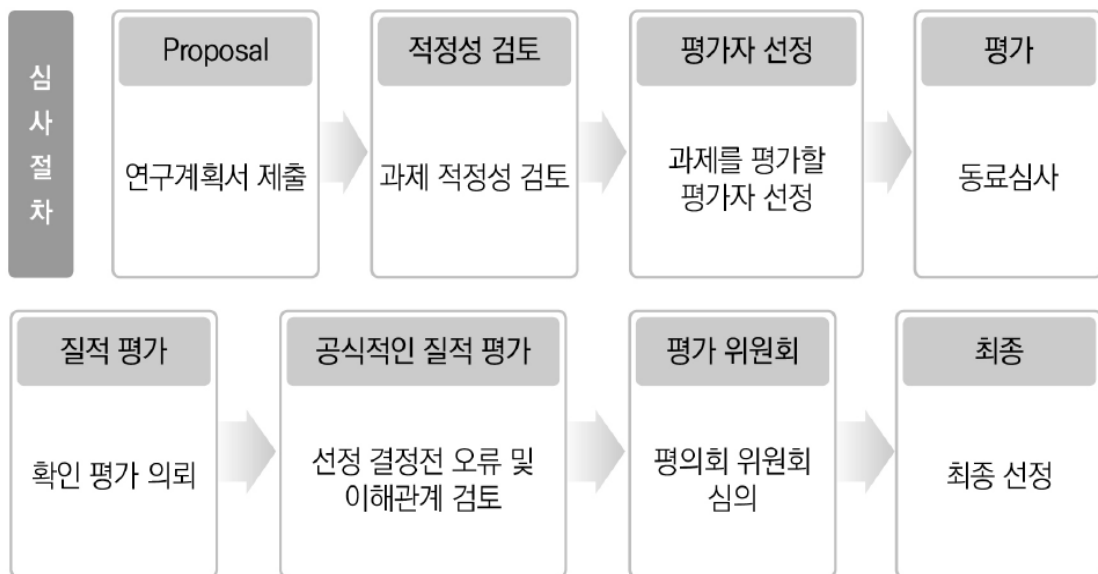
69) 이효빈 외, 독일연구재단(DFG) 연구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소개, - 바이오분야 중심으로 - NRF ISSUE REPORT 2019_08호, 한국연구재단, 2019, 2p.

16.3%인 6억 3,730만 유로를 인문학과 사회과학 지원에 사용했다. 그중에서 인문학의 비중이 더 크고 학문 간 연구비 배분은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의 수요와 계획서의 질에 따라 정해진다.

연구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자들은 연구주제와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선정위원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선정위원의 심사에서도 일반적인 지침이 있을 뿐 대부분 선정위원의 자율적 심사에 맡긴다.

DFG가 연구비를 지원할 때 지키는 기본적인 원칙은 우수한 학문 연구 수행의 지침 준수 여부,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동등한 기회 창출, 성별, 임신과 출산, 육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시스템의 다양성, 마지막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지식 이전의 원칙이다.

<표 1> 심사 절차⁷⁰⁾



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DFG 사무국에서 신청된 과제의 적정성 및 행정적 검토를 시행한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한다. 신청자와

70) 이효빈 외, 독일연구재단(DFG) 연구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소개, - 바이오분야 중심으로 - NRF ISSUE REPORT 2019_08호, 한국연구재단, 2019, 10p.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평가자로 선정된다. 두 명의 평가자가 연구목표, 지원자의 자질, 연구 환경을 고려하여 연구과제를 심사한다. 이를 동료 심사라고 부른다. 평가자는 평가점수가 아닌 평가의견만을 사무국에 제시하고, 이러한 평가의견을 가지고 질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제3의 전문가가 동료 심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청과제에 대한 최종 확인 평가를 수행하여 사무국에 통보한다. 평의회 위원회는 평가된 과제를 최종심의하여 선정한다.⁷¹⁾

DFG는 연구자의 연구를 독려하고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다양한 상도 시상한다.

대학의 경우 최장 12년까지의 프로젝트 지원이 가능하나 아카데미의 경우 12~25년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아카데미에서 수행되는 장기간 프로젝트는 학문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도 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도 새로운 정책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지원하고,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과 독일 학술 교류처(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 - DAAD)는 해외 교류를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그 밖에도 대학들과 수많은 민간재단이 인문학 연구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 재단(Volkswagen Stiftung)이 2016년에 3천 3백만 유로(한화 420억 원), 프리츠 티센 재단(Fritz Thyssen Stiftung)이 2017년에 8백만 유로(한화 104억 원)를 인문학에 지원했다.⁷²⁾

2 대표적 인문학(또는 인문학 포함 융복합 연구) 지원 프로그램 및 특징

가. 프로그램 개요(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인 DFG의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모든 학문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71) 이효빈 외, 독일연구재단(DFG) 연구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소개, - 바이오분야 중심으로 - NRF ISSUE REPORT 2019_08호, 한국연구재단, 2019, 11p.

72) 송승철 외, 한국 인문학 정책 연구: 성찰과 대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119p.

나. 프로그램 유형 및 특징

1) 연구자 지원

* 발터 벤야민 프로그램 Walter Benjamin-Programm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박사 후 과정의 연구를 보통 2년간 지원한다. 이동성을 권장하기 위해 기관변동도 가능하다.

* 에미 뇌터 프로그램 Emmy Noether-Programm

국제적으로 유명한 저널 또는 유사한 형식의 출판물의 연구성과를 가진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우수한 학자에게 교수 임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년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받은 후 독일에서 연구한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 하이젠베르크 프로그램 Heisenberg-Programm

교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학자 또는 교수 자격에 준하는 업적을 통해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입증하였으나 아직 종신직 교수직을 얻지 못한 학자에게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학문적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 개별 프로젝트 Einzelprojekte(연구보조금 Sachbeihilfe)

높은 학문적 질과 독창성을 증명하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연구자에게 프로젝트 동안 지원한다.

* 라인하르트 코젤렉 프로젝트 Reinhart Koselleck-Projekte

매우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위험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입증한 학자에게 지원한다.

직원, 과학 장비, 소모품, 여행 및 기타 출판 비용을 위해 최대 5년 동안 지원한다.

* 신청 패키지 Antragspakete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구자의 개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평가 및 결정은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 국제협력의 구성 Aufbau internationaler Kooperationen

해외 학자와 학문적 협력을 구축하려는 학자에게 해외여행, 게스트 숙박 또는 프로젝트 준비와 워크숍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 중점 프로그램 Schwerpunktprogramme

독일 연구기관 또는 해외 독일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모든 분야의 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지역적 협력을 하고, 학문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져올 학제적 주제에 관한 연구를 6년 동안 지원한다.

* 프로젝트 아카데미 Projektakademien

최근 6년 이내에 최초로 임용된 전문대학 교수가 경력 초기 단계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총 2년간 지원한다.

2) 그룹 및 연구소 지원

* 연구그룹 Forschungsgruppen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대학 외 파트너의 협력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학문적 능력을 보유한 학자들의 연구그룹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 대학 연구그룹 Kolleg-Forschungsgruppen

2~3명으로 구성된 인문학 및 사회과학 학자의 연구그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8년까지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독일 및 해외 학자를 최대 2년까지 초대할 수 있다. 먼저 대략의 신청서를 제출해서 선정되면, 구체적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받는다.

* 학문적 네트워크 Wissenschaftliche Netzwerke

10~20명으로 구성된 학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여비 및 체류비, 출판비, 회의비 등 기타 비용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해외에 있는 학자도 신청할 수 있다.

* 학문후속세대 아카데미 Nachwuchsakademien

젊은 학자가 부족한 학문 분야에서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초기 경력 단계의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20명 주니어 아카데미 참가자 및 외부 과학자를 위한 여행 및 숙박 비용과 워크숍 등을 위한 최대 10,000유로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 국제 학문행사 Internationale wissenschaftliche Veranstaltungen

독일에서 국제적 성격을 지닌 학문행사와 전문학회의 연례 행사를 지원한다. 국제회의는 참여하는 학자의 수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고, 연례 회의는 2년마다 지원된다.

* 연구를 위한 새 장치 Neue Geräte für die Forschung

독일 연구기관이나 해외 독일 연구기관의 모든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의 기초 연구에 사용할 새로운 유형의 장치 개발을 지원한다.

* 학문 전문 정보 서비스 Fachinformationsdienste für die Wissenschaft

국가적이고 효율적이며 필요 지향적인 정보 인프라로서 전문 정보 서비스(FID)의 개발 및 확장을 지원한다.

* 연구데이터를 위한 정보 인프라 Informationsinfrastrukturen für Forschungsdaten

학문의 특정 요구에 맞춘 효율적인 정보 인프라 관리를 위해 RDM(연구 데이터 관리)를 활성화, 개선 및 추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학자 및 정보 인프라 기관을 지원한다.

* 학문 출판을 위한 인프라 프로그램 Infrastrukturen für wissenschaftliches Publizieren

학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구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오픈 액세스에서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출판 인프라의 구축 및 확장과 오픈 액세스 변환을 위한 구조적 프레임워크 조건의 (추가) 개발을 지원한다.

* e-연구 기술 e-Research-Technologien

웹 기반 기술 및 프로세스로 디지털 정보 및 데이터에 의존하는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학문 전체 또는 개별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지원한다.

* 디지털화 및 개발 Digitalisierung und Erschließung

연구를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소장품 및 컬렉션의 디지털화 및 개발을 위해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박물관, 컴퓨팅 및 미디어 센터와 같은 학문 정보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지원 프로그램 “정보 인프라에 대한 공동 조직화 책임”(Förderprogramm, “Verantwortung für Informations-infrastrukturen gemeinsam organisieren”(VIGO)

학자뿐만 아니라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박물관, 컴퓨터 및 미디어 센터와 같은 비영리 학문 정보 인프라 기관을 대상으로 학자와 운영자가 연구 관련 정보 인프라의 개발 및 확장 또는 장기적 보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독립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특별연구분야/초지역 Sonderforschungsbereiche/Transregios

대학 연구기관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의 높은 독창적이고 까다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12년 동안 지원한다.

* (국제) 대학졸업생 대학 (Internationale) Graduiertenkollegs

젊은 학자를 육성하기 위한 최대 9년 동안 대학에 지원한다.

* DFG 연구센터 DFG-Forschungszentren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국제적으로 눈에 띄는 혁신적인 학제 간 연구기관을 대학에 설립할 수 있도록 최대 12년간 지원한다.

* 우수 클러스터 Exzellenzcluster(연방과 주의 우수 전략 Exzellenzstrategie des Bundes und der Länder)

협력하는 학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수 클러스터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학문의 중심지로서 독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원한다.

* 대형 연구 장비 Forschungsgroßgeräte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초지역적 중요성을 가진 연구를 위한 대형 장비에 대해 최대 7,500,000유로의 금액까지, 그리고 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 주의 대형 연구 장비 Großgeräte der Länder

“대형 국가 장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 및 대학 병원의 대형 장비를 지원한다.

* 연구 건물 안 대형 장비 Großgeräte in Forschungsbauten

연구 건물에 필요한 대형 장비를 지원한다.

* 대형 장치 이니셔티브 Großgeräteinitiativen

뛰어난 혁신 기술과 특별한 과학 및 기술 문제를 촉진하는 목적을 가진 복잡한 대규모 장비를 지원한다.

* 장비 센터 Gerätezentren

대학의 장비 센터에서 정교한 장치 기술 설비를 지원한다.

* 오픈엑세스 출판 비용 Open-Access-Publikationskosten

학술기관에 학문적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출판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 국가 연구데이터 인프라 Nationale Forschungsdateninfrastruktur

연구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및 사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네트워크화하는 대학, 연구 기관, 아카데미에 지원한다.

다. 우리나라 유사 프로그램과의 비교 및 변별점

DFG의 연구지원프로그램은 개인, 공동, 우수 대학 및 연구소 육성, 연구시설장비, 국제협력 등이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은 개인 연구지원으로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주제와 연구비를 정하여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DFG는 인문 사회계열과 이공계의 구분 없이 지원하여 특별히 인문학이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이나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학자들이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를 최대 25년까지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학문후속세대가 안정된 자리를 찾을 때까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장기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학 교육과도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연구와 교육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지원이 해외 협력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DFG 자체가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해외 학자와의 협력을 중요시한다.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인프라 지원도 체계적이며 현재는 연구결과를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한다.

3 최근 정책동향 및 시사점

문화국가로서 정체성을 천명하는 독일은 인문학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대학뿐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 연구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과학기술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인문학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문학의 역할과 그동안의 인문학의 자산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

“인문학에서 디지털러티”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들이 인문학적 연구와 그 연구 대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인문학의 확대가 일어나는가 혹은 인문학의 본질이 달라지는가?”, “고전적인 해석학적인 단초와 디지털적인 방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 “그 결과들은 학문후속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다.⁷³⁾

독일디지털도서관(Deutsche Digitale Bibliothek)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시하여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⁷⁴⁾

연방국가인 독일은 총 16개 주정부의 고등교육 담당 부서가 자신의 지역 사회 상황에 맞추어 교육정책을 시행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대학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독일의 이러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관계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한국 글로벌 대학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문학은 문화적 기억에 기여하며, 여러 문화 간 매개자로 기능한다. 인문학은 사회의 가치와 발전의 방향성을 반영하고 제시하며, 우리의 미래에 형태를 부여한다. 인문학은 또한 여러 분야의 과학, 경제와 사회의 국제화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그 특화된 지식으로 그 과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인문학은 자연과학 및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과도 협력하여 사회가 미래에 직면할 문제들의 맥락과 방향성을 명확히 밝히는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타 분야가 그 전문성에 갇혀서 그 분야 내부에서 지식을 축적한다면 인문학은 분야를 넘나들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매개자” 혹은 “번역자”로 기능할 수 있다. 인문학은 그 본질에 있어 융합적 성격을 갖고 있어 각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73) 이주영 외, 디지털-빅데이터의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19-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59p.

74) 이주영 외, 디지털-빅데이터의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19-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77p.

인간이 과학기술에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이공계 연구가 인문학과 협력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연구지원은 인문학과 이공계를 나누어 이루어지고, 인문학 지원은 전체 학문 지원에서 1% 정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언론은 취업과 관련하여 인문학의 무용론을 공공연하게 보도한다. 이러한 영향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문학 전공들은 대학에서 통폐합의 위기에 처해있고, 인문학이 학문으로 존속하기 힘들 정도로 학문후속세대는 축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자들이 자부심을 품고 연구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이공계 인력은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지만, 그 나라 정신의 근간과 정체성을 고찰하는 인문학은 그럴 수 없으므로 이는 국가 전체의 위기를 가져온다. 인문학의 위축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 정서적 황폐화, 과학기술의 위협에 우리나라 학계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다.

인문학자들이 안정적으로 다른 학문과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하며 학문후속세대들이 중단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에는 대학 이외에도 수많은 연구소에서 인문학 연구가 진행된다. 국가가 설립한 연구소뿐 아니라 민간에서 연구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2020년에 발표한 고등학교 제2외국어 과목 편성 현황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 190개교 중 독일어 1을 편성한 학교는 10개교(5.3%), 프랑스어 1을 편성한 학교는 24개교(12.6%)이고, 일본어와 중국어를 편성한 학교는 각각 108개교(95.8%), 182개교(95.8%) 이다⁷⁵⁾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불균형한 외국어교육은 대학 외국어문학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국가로서 한국이 쌍방향적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적합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문학과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⁷⁶⁾

한 사회의 혁신과 개혁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서 시작된다. 대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합연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융합연구를 위해서는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학문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⁷⁷⁾

75) 외대교지, 그 많던 독일어·프랑스어 수업은 어디로 갔을까. 2021, 9.15,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371771&memberNo=42953186&vType=VERTICAL>

76) 광정연(2023), 독일 한국학과와 한독 문화교류 -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100, 313p.

77) 광정연(2023), 독일 한국학과와 한독 문화교류 -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100, 313p.

독일처럼 학문협의회를 설립하여 창의성을 토대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희소 학문 및 소수 학과에 대한 지원책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년에 출범하였으나 독일 학문협의회처럼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독일 학문협의회에서의 결정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최대 지원기관인 DFG는 학문 협의회 제언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연구비를 배분한다. 이처럼 학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입안자, 언론계 등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독일처럼 인문학의 해를 지정해 각종 행사를 통해 인문학에 대한 선입견을 수정하고, 인문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사회 전체에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이제까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4개 나라의 인문학 지원기관의 개요 및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해 각 나라가 추구하는 인문학의 방향과 지원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각 나라의 인문학 지원 방향에는 명확한 특성이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는 미국 시민 사회의 구성 주체들이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간 조건의 조사, 문화유산의 이해, 다양한 신념과 문화에 기초한 상호 존중의 강화, 미디어 및 정보 활용 능력의 개발, 시민 교육 계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일본은 현대 일본 사회에서의 인문학 방향을 설정하는 문부과학성의 중단기 계획에 맞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학문후속세대양성이나 ‘돌봄’으로 인한 연구 단절에서의 회복 지원, 글로벌 네트워킹을 중시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한국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지만 고용안정성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마련, ‘돌봄’의 개념 확대 등 현재 일본에서 중요한 가치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인문학 지원 프로그램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미국이나 일본이 각 나라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맞춰 인문학 지원을 재설정하고 있다면, 이에 비해 유럽의 두 나라는 인문학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국내 기관의 네트워킹을 중시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프랑스는 국립과학연구원과 대학 연구소 또는 특성화된 고등교육기관 및 전문기관과 대학 연구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 대학 연구소와 연구 지원기관 사이의 긴밀한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문과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기초인문학과 함께 인문융복합 시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또 독일에서는 인문학 연구가 대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협회, 아카데미, 연방정부 소관 연구기관(Ressortforschungsinstitute), 민간기관, 그리고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 등 수많은 기관이 독일 곳곳에 분포되어 네트워크를 이루어 수행된다.

각 나라가 인문학 및 인문학 지원에 대해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가 인문학을 바라보는 관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근대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의 학문적 개념이 정착됨과 동시에 다양한 인문학 연구 및 지원기관이 자리 잡은 유럽에서는 많은 기관의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현재의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인문학 지원에 접근하고 있다.

4개 나라의 접근방법은 저마다 한국의 인문학 지원 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여겨진다.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한국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학문

분야의 매개자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학문과의 융합연구의 토대가 되는 인문학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인문학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인문학이 기초학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문후속세대들이 중단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독일 학문협의회나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처럼 구체적인 연구를 토대로 중장기 인문학 정책을 수립할 상설기구의 설립 또한 시급하다.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한국연구재단법의 제정과 함께 설립된 연구지원기관이다. 전신인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까지 포함하면 역사는 더 길어지겠지만, 단독 조직으로서는 위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지원기관 중에서 가장 젊다고 할 수 있다. ‘젊다’는 것은 역사가 짧다는 의미보다 급변하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유연성과 과감성이 있는 조직이라는 의미가 더 클 것이다. 본 보고서가 주요 선진국의 인문학 지원기관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인문학 정책이 고등교육 전반으로의 인문학 수렴, 인문학과 비인문학의 복합적 연결망 구축, 정책 환경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동시대 및 미래 공동체를 위한 인문 연구를 특화하는 데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논문/보고서

- 박찬길(2011), 「미국과 독일의 인문학 지원정책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연구총서 2011-03』2011-0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4와 55p
- 조준희(2019), 「21세기의 인문학 교육을 위하여: 서양 각국의 디지털인문학 교육 현황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인문정책연구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28-169p
- 신은정(2016), 「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시사점(I): 주요 선진국 사례」, 『동향과이슈』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21-24.
- 오정은(2010),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유럽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합유럽연구』1, 통합유럽학회, pp.10-11.
- 곽정연(2023), 독일 한국학과와 한독 문화교류 -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100, 295-317p.
- 문화체육관광부(2021),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문화체육관광부, 2021.12.21., 4p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 2015.12.22.(<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101372>)
- 교육부 보도자료, 「2023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기본계획」, 2023.04.10.(<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619&lev=0&m=0204>)
- Antoine Petit, Sylvie Retailleau, Cédri Villani, Rapport, *Financement de la recherche, Loi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a recherche*, 23/09/2019, pp. 56-58.
- 독일 연방교육부(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Forschung) 홈페이지, https://www.bmbf.de/bmbf/de/home/home_node.html

독일 학문협의회(Wissenschaftsrat) 홈페이지, https://www.wissenschaftsrat.de/DE/Home/home_node.html

독일연구협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 홈페이지, <https://www.dfg.de/>

송승철 외. 한국 인문학 정책 연구: 성찰과 대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외대교지, 그 많던 독일어·프랑스어 수업은 어디로 갔을까. 2021, 9.15,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371771&memberNo=42953186&vType=VERTICAL>

이효빈 외, 독일연구재단(DFG) 연구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소개, - 바이오분야 중심으로 - NRF ISSUE REPORT 2019_08호, 한국연구재단, 2019.

이주영 외, 디지털-빅데이터의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19-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2 인터넷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2023.06.30. 최종 접속., (<https://www.neh.gov/>)

The Grants.gov program management office, 2023.06.30. 최종 접속., (<https://www.grants.gov/web/grants>)

「American Tapestry: Weaving Together Past, Present, and Futur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2023.06.30. 최종 접속., (<https://www.neh.gov/american Tapestry>)

“Fiscal Year 2024 Congressional Justification”,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2023.03., <https://www.neh.gov/sites/default/files/inline-files/NEH%20FY%202024%20CJ%20%281%29.pdf>)

Press Release, “NEH Announces \$35.63 Million for 258 Humanities Projects Nationwid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2023.04.18., (<https://www.neh.gov/news/neh-announces-3563-million-258-humanities-projects-nationwide>)

加藤麻樹他2人(2022)「若手支援セミナー企画・日本学術振興会特別研究員制度について」『人間工学』58、一般社団法人 日本人間工学会、S1B2-01.

日本学術振興会ホームページ (<https://www.jsps.go.jp/>)

日本学術振興会ホームページ「科学研究費助成事業(科研費)・研究種目・概要」

(https://www.jsps.go.jp/j-grantsinaid/01_seido/01_shumoku/index.html)

日本学術振興会ホームページ「日本学術振興会について」

(<https://www.jsps.go.jp/j-purpose>)

文部科学省 科学技術・学術審議会学術分科会「人文・社会科学の振興について - 21世紀に期待される役割に應えるための当面の振興方策 - (報告)」

2002.06.11.(https://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4/toushin/020601.htm)

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国立大学法人等の組織及び業務全般の見直しについて」

2021.07.05.(https://www.mext.go.jp/content/20210705-mxt_hojinka-100014178_3.pdf)

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新時代を見据えた国立大学改革」

2005.10.01.(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Files/afieldfile/2015/10/01/1362382_2.pdf)

山中千尋(2016)「日本学術振興会の設立経緯をめぐって：櫻井錠二による御進講「学術研究ノ振興」」『科学史研究』277、日本科学史学会、pp.35-50.

———(2021)「日本学術振興会の設立：組織形成と事業展開」『科学史研究』298、日本科学史学会、pp.131-149.

Centre national recherche scientifique, <https://www.cnrs.fr/fr/le-cnrs>.

<https://www.cnrs.fr/fr/la-recherche> (2023.06.20, 2023.07.03.)

Institut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https://www.inshs.cnrs.fr/fr>

(2023/06.21, 2023/07/02, 2023/07/10.)

Fondation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https://www.fmsh.fr/>

(2023/06.21, 2023/07/02, 2023/07/10.)

Les unités mixtes de recherche,

<https://www.culture.gouv.fr/Thematiques/Archeologie/Acteurs-formations/Les-unites-mixtes-de-recherche> (2023/06.22, 2023/07/05, 2023/07/9.)

https://fr.wikipedia.org/wiki/Liste_des_unit%C3%A9s_mixtes_de_recherche (2023년 7월 1일)

저자소개

| 강 수 미

동덕여자대학교 미학

| 김 희 진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

| 장 유 리

경북대학교 일어일문학

| 이 정 민

경상국립대학교 역사학

| 곽 정 연

덕성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

본 이슈리포트의 내용은 NRF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저자의 견해이며 동 내용을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NRF ISSUE REPORT 2023_8호

주요 선진국의 인문학 지원기관 사례조사 및 정책 시사점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인문학 지원기관 현황,
프로그램 및 특징, 시사점 –

|발행일| 2023년 11월 16일

|발행인| 이 광 복

|발행처| 한국연구재단

본 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서울청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http://www.nrf.re.kr>

|편 집| 정책연구실 정책혁신팀

ISSN 2586-1131